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5 vol.133



FENDI

FENDI.COM

BURBERRY.COM 에서 연말 선물을 만나보세요



CHANEL

FINE JEWELRY



SOUS LE SIGNE DU LION

NECKLACE IN YELLOW GOLD AND DIAMONDS
RING IN WHITE GOLD, ROCK CRYSTAL AND DIAMONDS

갤러리아 명품관 East (02) 3442-0962

www.chanel.com




GPHG
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
2014
Ladies' Watch Prize

Heure Décentrée, petite seconde rétrograde
Winner of the "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 2014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BLANCPAIN BOUTIQUES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지하1층 (02-6905-3367)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에비뉴엘 2층 (02-2118-6474)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워커힐 면세점 B1층 (02-450-6576)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www.blancpain.com



42

40

조선일보
Style
KOREANUS

FENDI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펜디의 2015~16 F/W 여성복 컬렉션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펜디 파카부 백이다. 모델이 들고 있는 카보 레터 소재의 자오 메트릭 파카부 백은 로마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펜디의 가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문의 02-2056-9023



22



10

- 14 **21세기 새로운 채식주의에 물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오래된 식습관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채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변종 생각 해보는 것은 어떨까?
- 16 **DIAMOND SHOW**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하이엔드 워치.
- 18 **HIGH IMPACT** 남자를 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0 **A COLLECTION OF US** 베네룩은 최근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트레비소에서 '베네룩담게 차별된' 발표식을 가졌다.
- 22 **TOP COAT** 그래픽 패턴과 최상의 패브릭, 정교한 실루엣이 만들어낸, 시크한 겨울을 위한 2015 F/W 코트 컬렉션.
- 30 **THE SCENT OF LEGEND** 1921년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샤넬 'N°5' 홀리데이 컬렉션.
- 32 **GENTLE CARE** 남들보다 더 아리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맨즈 코즈메틱.
- 33 **MAGICAL MOISTURE** 트랜스포머 제형에 세럼과 오일의 매직 비율로 채운 해리의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 34 **MAN IN RED** 현대 남성들이 반길 만한 향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름하여 페라리 맨 인 레드.
- 35 **ULTIMATE SERUM** 황금 비율로 농축된 강력한 수용성, 지용성 성분이 섞여 내 피부에 보약이 되는 클라라스 '더블 세럼'.
- 36 **STEAL IT STYLE** 배우 공효진이 칸템페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 보니와 함께 특별한 슈즈를 선보인다.
- 37 **WINTER LUXE** 몽클레르(Moncler)의 럭셔리 윈터 컬렉션.
- 38 **ATIMELESS ICON** 펜다가 자선 기금 모금을 위해 3명의 아이코닉한 여성들과 함께 특별한 파카부 백 공개를 앞두고 있다.
- 39 **VERITABLE A SECOND** 예거 르클트르가 최근에 내놓은 아심작은 1958년 모델 지오파직의 복각판이다.
- 40 **NEW HEART OF SEOUL** 최고급 호텔 체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포사존스가 광화문에 입성했다. **IT'S SO HOT** 이브네 스튜디오가 국내 론칭 2년 만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 41 **PERFECTIME** 미도가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상대한 이벤트와 더불어 오직 한국을 위한 한정판 시계를 내놓았다.
- 42 **ENCHANTING HOLIDAY 2015** 올해도 북사탕이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2015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 44 **BE REFRESHED** 피부 톤과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비타민 A이탈로 푸석하고 칙칙해진 환절기 피부의 해결사다.
- 45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꼽은 이달의 코즈메틱.

Style 조선일보

Issue.133 November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원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WWW.GRAFFDIAMONDS.COM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 1층 • 02) 2230 1288

www.richardmille.com

© Didier Gaubert

모토 그래픽비 박진주
진짜 정수용 스타일리스트도 고은선 포토그래퍼 심용석

Living GOLDEN AGE

고급스럽고 중후하면서도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골드 컬러 아이템. 리빙 아이템과 만난 다채로운 골드빛의 향연.

(위 왼쪽부터) 스펀한 디자인의 원형 거울 33만원 리플리에 디렉셀리스 by 에이피스. 거울 앞의 낮은 골드 베이스 모던 하우스다터 by 에이피스. 적동 소재 호라형 모양의 베이스 32만원 하우스다터 by 에이피스. 목적인 황동 소재로 만든 욕조형 및 722만원 필라핀 by 에이피스. 거울에 표면을 마감한 골드 속대는 동그란 손잡이 가 달린 것이 특징. 329만원 캐빈 하우스다터 by 에이피스. 수확적인 콘셉트에서 출발한 브론즈 소재의 장미치 오너먼트 923만원 에이피스. (아래 왼쪽부터) 마카롱을 비롯해 핑거 푸드를 내기 좋은 디자인 장미성 by 엘스토어. 적동과 실버 투톤 컬러 장미 12만원 강희성 by 엘스토어. 매끈한 조약돌 모양의 브라운 소재 타라이트 캔들 홀더 10만원대 강희성 by 엘스토어. 적동 소재의 와이어를 고이서 만든 알함바스켓 모던원 하우스다터 by 에이피스. 풍부하고 잔잔 맥주 거품을 만드는 맥주 거품기 698만원 매뉴 by 에이피스. 모든 상품을 전월 한 가드너 스틸 소재의 트롤리 592만원 SMD by 에이피스.



Jewel HOT LINK

정교한 세공, 입체적인 매력으로 소장 가치를 높여주는 체인 컬렉션.

(위부터 아래로) 사자 얼굴의 팬데트 모란핀이나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조각된 네크리스 체인이 돋보이는 라이온 컬렉션 네크리스 가락미 정 사설 최인 주얼리. 진주와 열쇠 모양의 모티브를 더해 여성스럽고 모던한 매력을 함께 담은 아 시크릿 브라이덜릿 2백만엔더 타사키. 뉴욕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티파니 로고 T 로고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체인으로 완성한 티파니 T 컬렉션의 체인. 티파니 T 체인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9백만엔더. 스틸링 실버 소재의 두께감이 다른 볼드한 네크리스 5백만엔더 모두 티파니. 에디터 배아린



Beauty MY HOLIDAY ROMANCE

단어만 들어도 살레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뷰티 리미티드 에디션이 쏟아지고 있다. 오직 11월과 12월 딱 두 달간 만날 수 있는 한정판 홀리데이 코스메틱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패키지와 컬러로 여성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이 특별한 제품들을 소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백화점 매장으로 달려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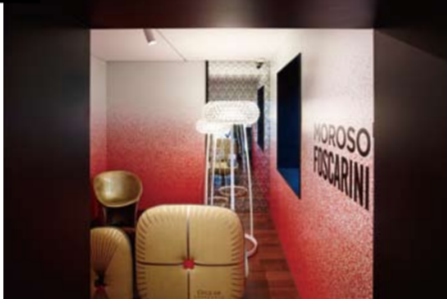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새하얀 눈꽃 모티브가 우아하게 내뿜은 실버 케이스의 **엘랑 루즈 G 메이크업 로즈**는 모든 피부 톤에 어울리는 세련된 로즈 컬러 립스틱. 주얼리 디자인이 콘셉트 비주얼이 작업에 참여해 완성된, 보석함을 연상케 하는 패키지가 역시 이랜드(3.5g 6255천원). 화려하면서도 색다른 글꼴 패키지가 돋보이는 **디올 디오르피 메이크업 립스틱**은 아주 신중하고 오랜 시간 반복되는 컬러를 유지하는 매트한 타입의 립스틱이다. 피우다리움을 최한 유자향에서 발췌한 이 매끄러운 이무리움을 선사하는 산기넨 립 제품이다(3.5g 4만6천원). 상징적인 꽃잎 패턴을 다한 이기서도 플래트. **샤넬 샤넬 파타리트**는 밝고 부드러운 핑크 베이지 컬러부터 강렬한 파를 컬러까지 4가지 신비로운 컬러로 구성했는데, 매트한 질감, 벨벳 질감 등 텍스처도 변형을 주어 다양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4g 8만1천원). 귀여운 사슴의 글자를 새긴 이 립글로스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매종 카르카의 컬러라이선으로 탄생한 **슈아리야에중 카르네 라피 스파클러**. 위트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는 매종 카르카와 컬러의 미술사 슈아리야가 만나, 패키지와 컬러 모두 통통 튀고 사랑스럽다(3.4g 3만7천원). 늘 가을들과의 컬러라이선으로 이슈가 되는 나스의 율해의 선택은 포토그래퍼 스티븐 클라인. 초현실적인 사진으로 주목받는 그의 작품답게 몽환적이고 대담한 컬러를 담은 **나스 스티븐 클라인 컬러 라인 스티븐**은 유혹적이고 신비로운 립 메이크업을 선사한다(3.4g 3만7천원). 주얼리 디자인이 조지 코카치가 탄생시킨가 연우회 콘셉트의 **엘리트브 브래드 조지 코카지 컬러레이 에디션 피우다리**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보디 피부를 완성해줄 특별한 피우다리. 착각한 보디 피부를 희사하게 연출하고, 매혹적인 향까지 풍겼다(9.5g 11만엔). 발췌하고 색다른 카스 마크로 도배된 **인생로망 컬러 필레트 키스 & 리브 에디션**은 패키지만으로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게다가 4가지 이기서와 2가지 컬러의 립, 블러시를 모두 담았으니 이보다 알차고 실용적일 수 없다(10.6g 10만8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예술적인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모로스 플래그십 매장 오픈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아한 개성을 말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모로스(Morosio) 플래그십 매장이 최근 서울 도산공원 근처에 문을 열었다. 론 아라드, 로스 러브그로브,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 토르트 본체 등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실제 눈으로 감상하고 고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모로스의 아트 디렉터 파트리치아 모로스(Patrizia Moroso)와 그녀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꾸민다는 이 매장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3개 층, 222㎡ 규모의 공간에 들어서 있는데, 모로스의 DNA를 녹여낸 한국인들의 성향을 감안해 보다 편안한 감성의 '스위트 홈'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각각 90㎡ 규모의 1층과 2층 소품은 스페인이 낳은 디자인업계 '여왕' 우르퀴올라가 디자인한 젠트리(Gentry) 소파를 비롯해 피시본(Fishbone) 테이블, 빅니트(Biknit) 체어, 빈도의 클라우드(Cloud) 테이블 등이 편안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으로는 론 아라드(Ron Arad)의 돌레레즈(Do Lo Rez) 소파, 요시오카 도쿠진의 문(Moon) 체어, 도시 & 레반엔 디자인의 마이 뷰티풀 백사이드(My Beautiful Backside) 등은 좀 더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지하로 내려가면 1, 2층과는 완전히 색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비로 패션 브랜드 디젤과 모로스가 협업해 선보인 디젤 리빙 제품을 모아 꾸민 공간으로, 검은 페인트를 칠한 노출 벽면이 룩 시크 스타일을 풍기면서도 과도하게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다. 은은하게 소품을 장식하는 조명은 모두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 포스카리니(Foscarini) 제품이다. 세련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리빙 디자인의 미학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발걸음을 이기지 않을 만한 공간이다. 문의 02-3442-1952(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2길 15) 에디터 고성연



Event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신명' 나는 개막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스티파노 조반니, 일러스트로 멘디니, 이토 도요가 광주를 찾았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정들의 작품은, 단지 보고 즐길 뿐만 아니라 실제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올해 비엔날레의 큰 특징 중 하나다. 1관(광주 브랜드) 전시를 통해 광주의 중소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국제 디자인 9명의 작품을 양산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테마에 따라 총 5개 관으로 분리돼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희원 큐레이터의 추천으로 엄선한 이번엔 안 보면 후회할 전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예가 이기진의 도자(가 5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린 1관의 <한국의 문화를 품을 수 있다. 건축가 송효상(가) 전시 공간을 디자인했고, 사진작가 배병우(가) 공간을 연출했다. 다음으로, 2관 <한중일 문화(가) 중 일본의 큐레이터 히사모토 가즈유키(가) 기획한 일본관이 일본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의 순회 전시를 한국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4관의 <뉴 이탈리아 디자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와 파트너들의 협업을 소개한 3관의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를 추천한다.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디자인 문화의 이리도 반짝이는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문의 www.gdb.or.kr 객원 에디터 이소영



조지 엘스의 디자인으로, 햇살을 모티브로 한 우드 소재의 시계 57만원 비트라.

내츄럴링이 새로 만든 이가 시트에 목 소재로 양행 커튼 테이프를 97만원 핀치.

에디터 권유민, 권형 사에(타이)를 촬영(노스)

합판을 구부려 제품의 등판과 좌판을 곡선으로 표현한 그레이 이크 디자인의 체어 5백만원대 링크 프로덕션 by 에이투스.

이치 형태의 헤드로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강조한 앙증길 디자인에의 신원 2백만원 앙증길 by 모렐칼렉션.

북아메리카는 듯한 촛농의 모습을 담은 풀 루버즈 디자인의 촛대 329만원 에어리퀴어 by 아베크나인.

고전적인 곡선을 살린 그레이 컬러 거울, 우드 프레임에 나일론 섬유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99만원 타겟트 by 보에.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왈츠 컬러가 집 안 분위기를 세련되게 바꿔줄 재-바 라지 사이즈 스피커 2백20만원 재-바 by 10 프로스 꼬모.

빛의 조건이 안 좋으면 인공 조명까지 고려하세요. 에이투스.

슬레이트와 오크 소재를 사용한 치즈 보드 작은 사이즈 99만원, 큰 사이즈 109만원 존루이스.

for him Selection

다크 우드 소재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면 세련되고 차분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중후한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인테리어 아이템. *photographed by koo eun mi*

다이얼과 스피커로만 구성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 빈트(빈) 느낌의 라디오 8만5천원 렉스 by 에잇칼렉스.

오크 소재의 3단 트레이. 7층에 고정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 빈트(빈) 느낌의 라디오 각자의 트레이는 알루미늄 울짚일 수 있어 수납이 더욱 편리하다. 18만5천원 스카펠 by 이노베사.

중성이 프린트가 유니크한 쿠션 29만원 프라-제타 by 10 프로스 꼬모.

비트라 02-511-3437
 에이투스 02-3785-0860
 핀치 02-545-6662
 보에 02-517-6326
 아베크나인 02-515-9011
 존루이스 02-310-5379
 모렐칼렉션 070-8159-3159
 hL1991 02-515-5361
 에잇칼렉스 070-8654-3637
 이노베사 02-3463-7752
 도무스디자인 02-6091-3295
 에르메스 02-544-7722
 10 프로스 꼬모 02-3018-1010

블랙 컬러의 가죽 소재에 가죽 뒷면 질감을 이용해 단추와 미간에 포인트를 준 암체어 4백50만원대 루카보피 by hL1991.

일체형 터치 버튼을 사용해 등부터 다리 부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너 제품 5백40만원대 코야노 by 도무스디자인.

Publicis EtNou

Slim d'Hermès watch in rose gold, Manufacture H1950 ultra-thin movement.



SLIM D'HERMÈS, PURITY IN MOTION.



라 몽트르 에르메스 코리아
 02 542 6622

slimhermes.com



for her
Selection

라이트 그레이와 파스텔 톤의 색감은 포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안성맞춤. 집 안 곳곳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줄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옐로, 그레이 컬러의 패턴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내는 디너 웨어 플레이트 6만2천원대, 머그 3만1천원대 **휘슬러**.

장육면체의 심플한 디자인에 3개의 다리가 아이작이한 느낌을 더하는 캐비닛 3백만1천원대 **루카브피 by hl.1991**.

너도밤나무와 오크나무로 만든 이가자한 느낌의 투기 오브제. 가죽끈을 이용하면 행잉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 6만5천원 **오이오이 by 에이투픽스**

높이가 다른 그레이, 옐로, 로즈 그레이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된 도자기 화병 6만7천원 **케틀러 by 아노베사**.

핑크 컬러의 패브릭 소재로 만든 라운지 체어는 하이 메 아군이 디자인한 제품. 3백만1천원대 **프리츠 한센 by 에이투픽스**.

천연 방죽 효과를 갖춘 브라운 패브릭을 이용한 캐시 체어. 독특한 패브릭이 따뜻함을 더한다. 80만3천원 **카리모쿠60 by 리모트**.

상상적인 패턴, 컬러로 포인트를 준 애플링 가죽 케이스. 1만1천원대 **에르메스**.

톤 다운된 컬러감의 패이퍼 박스. 소품을 넣거나 선물 포장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살구색 작은 상자는 2만8천원, 파플 큰 상자는 3만4천원 **하우스다터 by 데이글로우**.

라이트 그레이 톤의 박스 모듈을 쌓아 만든 캐비닛. 원하는 크기 및 컬러의 모듈을 선택해 주문 제작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몬타나 by 텐스크**.

집들랑 070-7803-3798 **에이투픽스** 02-3461-0172 **아노베사** 02-3463-7752 **휘슬러** 080-400-4100 **hl.1991** 02-515-5361 **에이투픽스** 02-3785-0860 **리모트** 02-2051-9888 **데이글로우** 02-6397-9937 **텐스크** 02-592-6058 **웨이워드** 02-3446-8330 **10 코르스 코모** 02-3018-7722 **에르메스** 02-544-7722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21세기 새로운 채식주의에 묻다

채식은 채식주의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주의자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식에 몰두하는 육식주의자도 많음을 느끼게 된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오래된 식습관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채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현대의 채식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플 매킨타나 비건이 된 이유

우리나라에도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며, 채식을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졌다고 말한다. 식단을 축소했음에도 어떤 점에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됐다고 자신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채식주의자라면 비틀스의 멤버 플 매킨타나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잔인한 도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채식을 선언했는데, 2009년 코펜하겐 기후 변화 협약 관련 벨기에 토론회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 흥미로운 캠페인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았다. 알려졌다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육식이다. 햄버거 하나당 1.5평의 숲이 사라지며, 과도한 축산업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에도 단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자동차 5백만 대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낸다고 한다.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효과적이라는 놀랄만한 사실이 있다. 플 매킨타나의 딸인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매킨타나도 부친처럼 채식주의를 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콜로에를 성공시킨 그녀는 구찌 그룹과 자신의 브랜드 스텔라 매킨타나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 놀라운 것은 동물 보호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글로벌 비즈니스에 연결시킨 그녀의 추진력이다. 가죽, 모피와 같은 동물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계약에 포함시켰고, 인조가죽을 사용한 채식주의자 슈즈와 가방 등은 진짜 가죽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며 그녀의 애교 감각을 입증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도 스텔라 매킨타나의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과시할 수 있을 테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배우 귀네스 팰트로 역시 채식주의로 유명한데, 그녀는 소, 돼지 등 다리가 4개인 동물은 먹지 않는 세미베지테리언(semi-vegetarian)이다. 돼지 뒷다리를 숙성시킨 허브 요리로 유명한 스페인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 그녀를 스페인에서 돌봐준 분이 돼지 농장을 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소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귀네스는 미국의 TV 시리즈 〈스페인, 자동차로 떠나는 요리 여행〉에 요리사 마리 오 바탈리아와 함께 출연해 자신의 음식 취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급기야 요리책 〈Notes from My Kitchen Table〉, 〈My Father's Daughter〉 등을 발간했는데, 〈My Father's Daughter〉는 영화감독인 아버지 브루스 팰트로가 식도암 판정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크로바이오틱 식이요법을 시도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매크로바이오틱과 사할 음식, 비건의 차이

매크로바이오틱(macrobioic)과 채식은 공통점이 많다. 미국에서 매크로바이오틱 인스트럭터(Macrobiotic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한 〈자연을 닮은 밥상〉(위즈덤스타일)의 저자

이운서는 매크로바이오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음식과 생활을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또 계절, 제 지역에서 난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장식 사육으로 잔인하게 도축된 육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과 현미, 채식을 권하기에 채식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매크로바이오틱은 흰 쌀 생선 섭취를 허용하기에 가장 엄격한 채식인 비건(vegan)은 아니지만 세미베지테리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종교 수행의 전통 속에 발달한 사할 음식 역시 비건과 흡사한데, 다만 사할 음식은 타락죽 같은 유제품을 허용하기에 락토베지테리언(lacto-vegetarian)으로 볼 수 있겠다. 아마도 불교가 인도에서 유래되었기에 우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채식을 하면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자연을 닮은 밥상〉의 저자 이운서는 최근 TV 프로그램 〈비타민〉에 출연해 우유, 달걀, 생선도 먹지 않는 비건을 대표해 혈액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건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채식을 하며 이를 치유한 비건인 그녀의 혈액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 수치가 낮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 채식 레스토랑 '뿌리 온 더 플레이트(PUPRI on the Plate)'를 운영하는 강대웅 대표는 고교 시절 명상에 입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건이 된 경우다. 15년 동안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지극히 양호하다. 북미영양사협회의 공식 입장도 균형 잡힌 완전 비건 채식은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이 발표가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채식만으로도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웅 대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식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좋기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극단적인 추종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채식주의자는 베를린에 가야 된다?

건강한 식단에 대해 고민하며 세계 각국을 여행한 이운서 씨는 예술가가 많이 사는 도시에 채식 문화가 특히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에든버러, 미국 뉴욕·LA, 호주 멜버른 등에 채식 레스토랑과 채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젊은 예술가들은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며,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관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채식 문화에 마음이 열려 있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불교 신자가 많은 대만과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식 문화가 발달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중심부에 위치한 우붓은 예술가의 마을로 불릴 정도로 19세기부터 세계의 아티스트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요즘 우붓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즐기며 맛있는 채식을 만끽할 수 있는 100% 비건 여행도 가능할 정도다. 채

미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맥주와 소시지 소비국인 독일에서도 채식 문화가 크게 발달했다는 점이다. 2백 년 전통의 옥토베페스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등장했으며, 1천여 개가 넘는 채식 레스토랑이 성업하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슈퍼마켓 베간즈(Veganz)와 채식주의의 상품 전용 도매상 AVE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베간즈는 세계 최초의 비건 전용 슈퍼마켓인데,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과자, 애완동물 사료까지 없는 것이 없다. 독일의 채식 인구는 10% 정도로 추정되지만, 베간즈와 AVE의 고객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채식주의자만 채식을 즐긴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는 채식 레스토랑

미슐랭 가이드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레스토랑이 심심치 않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식의 도시 파리의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라르페주(L'Arpege)'와 '랑브루아지(L'Ambroisie)'는 엄밀히 말해 채식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비건도 즐겨 찾는 정도로 채식 메뉴가 많고 특별 주문도 가능하다. 특히 일명 파사드 셰프의 라르페주는 채식 메뉴가 다채롭기로 유명한데, 그는 지금은 세계적 트렌드가 된 직영 농장을 경영하는 셰프의 원조다.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레스토랑으로 매일 공수되는 신선한 채소에 대한 홍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채식 요리 중심의 메뉴를 선보이지만,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베르나르도 접시에 담아 서브하는, 구운 비트에 꿀을 올린 요리는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가격이 80유로나 된다. 하지만 정작 알맹 파사드 셰프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며 고기 요리 테크닉도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채식 소시지와 라비올리 등 채소로 만든 요리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키며, 자연주의 식단을 이끈 선두 주자가 된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뉴욕 역시 최근 채식 레스토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인 에릭 리퍼트의 '르 베르나르레(La Bernardin)'는 해산물로만 이루어진 메뉴 구성으로 세미베지테리언에게 인기다. 우리나라에도 채식 레스토랑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뿌리 온 더 플레이트'는 '맛있는' 비건 요리를 추구하는데, 동물 단백질이 없어도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메뉴 구성과 맛이 훌륭하다. 글루텐과 설탕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현미로 만든 디저트가 대단히 달콤하다. 이외에 '브라운 라이스', '슬렌치 팩토리' 등의 레스토랑도 추천할 만하다.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이유식 셰프의 레스토랑 '루이샹크'는 귀네스 팰트로처럼 네발 달린 동물 고기를 먹지 않는 세미베지테리언에게 인기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생선, 메추리, 오리, 닭 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약할 때 주문한 메뉴에는 없지만 비건을 위한 요리를 특별히 만들어주기도 한다. 모던 한식 레스토랑

랑 '밍글스' 역시 하루 전에 주문하면 비건을 위한 메뉴를 제공한다. 이곳의 강민구 셰프는 우리나라의 기본 양념이자 소스인 '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데, 그의 채식 요리는 맛깔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비건 체험하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채식주의자였다는 것을 아는가? 〈다빈치의 부엌〉(박하우스)에서 저자 데이브 드윗은 다빈치는 붉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채소를 많이 섭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자연은 그대를 만족하게 할 단순한 음식을 더 내놓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단순한 음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플라티나와 다른 요리사들이 그랬듯이, 그것들을 혼합해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가?" 다빈치는 노트에 이런 기록을 남겨 후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다빈치가 동물에 대한 동정심과 전쟁 무기를 만든 공격성,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1세기에도 채식주의자를 선언한다는 것은 호사자들의 입방아에 시달리며 비즈니스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다빈치가 살았던 15세기에는 오죽했을까?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가톨릭 정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었다고 찬미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다. 아이없게도, 교회는 채식주의자를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화형에 처하거나 교수형을 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빈치는 결코 자신의 음식 취향을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중세에 채식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몫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부자들조차 채식에 선호하게 됐다. 호화로운 연회에서 고기가 아니라 채소와 파스타가 최고급 요리로 추앙받기 시작한 것이다. 다빈치는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신에 대한 간구보다는 생명 존중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채식주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애잔한 마음으로 소, 돼지 등 주인을 알아보는 동물은 최대한 절제 먹지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에 가깝다. 채식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건은 사이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깊이 동감하게 됐다. 동물 단백질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새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짓수가 많아지고, 환경과 동물 권리 보호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 반갑다. 셰프와 미식가에게 채식은 상상력을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기도 하다. 여러분도 단기간의 비건 체험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플 매킨타나의 제안처럼 일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동물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도 권하고 싶다. 미래의 지구를 위해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SH** 글 이윤영(사건 미술에 종사하다), (서울, 그 카페 출판) 저자

(상단 왼쪽부터 시계열 화인 주얼리 J12 폴 피에 워치 새롭을 상징하는 J12 워치의 폴 피에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 캐주얼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매력적 독특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블랙 오프스의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강렬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0362

빈클리프 아펠 할 브레이슬릿 워치 38mm의 화이트 골드 라운드 케이스 배럴에 일체감 있는 3줄 다이아몬드 세팅이 눈에 띈다. 착용감이 뛰어난 브레이슬릿을 따라 출중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모두 다이아몬드다. 케이스 측면의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참이 360도 회전하는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0-5660

카르띠에 칼데리브 드 카르띠에 워치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물 팬더의 얼굴과 원형 디자인, 출중하고 정교하게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황홀경을 선사한다. 18K 화이트 골드에 정교한 오티브가 주얼리 브랜드이자 워치 브랜드로서 오랜 노하우를 쌓은 카르띠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둘째 줄 왼쪽부터) 브리제 라인 드 네이플 8918 여왕의 시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브레이슬릿 체인에 다이아몬드를 불규칙적으로 장식하게 세팅한 주얼리 워치, 상징적인 에그셰이프 케이스, 6시 방향의 피어 컷 다이아몬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브랜드의 명성까지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8천9백만원대, 문의 02-3149-9551

불가티 루체아 '행운'에서 영감을 받은 불가티의 아이코닉한 세로펜티 브레이슬릿 디자인에 불꽃감 넘치는 원형 다이얼, 핑크 컬러 크라운을 매치한 여성스러운 컬렉션. 33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6천만원대, 문의 02-2056-0172

파리자이니 칼파 몬나 원성도 놓고 유려한 디자인의 품격 있는 워치를 선보이는 파리 미자이니의 여성 워치. 본사와 고급 시계의 매력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낸 독특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이팅이치가 포인트다. 손목에 유연하게 감기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기장자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310-1737

부세몬 아바 주얼리 워치 브랜드의 오랜 시그니처인 아바 컬렉션의 워치 버전. 이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유성형의 아름다움과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조화를 이룬다. 최상의 원석만 사용하는 부세몬 브랜드의 지부심이 느껴지는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246

(8단 왼쪽부터) 티파니 라데일 2 핸드 피에 워치 뉴욕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모두 담은 라데일 워치.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다이얼에 세팅된 2백94개의 다이아몬드가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다.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이라 옐로 다이아몬드를 연상케 한다. 2천9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우엘로 클래식 퓨전 강골드 폴 피에 다이얼부터 배럴까지 매력적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스포티한 우엘로 고유의 디자인과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케이스에 1백14개, 다이얼에 2백74개, 배럴에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4천9백만원대, 문의 02-2118-6208 에디터 배미진



diamond Show

반짝임만으로도 두근거림을 부르는 다이아몬드가 눈꽃처럼 아름답게 무리를 이루어 완성한, 꿈 같은 풍경.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 I M E

p o s t m o d e r n



(왼쪽 가로 방향으로 놓인 제품을 위부터 아래로) 작은 T 모티브가 인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티파니 T 내로우 체인 네크리스 옐로 골드 소재 9백만원대 티파니, 옐로 골드 버클 모티브의 포스테 라지 링 3백만원대, 브랜드 창립자가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찬란한 빛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다양한 카보숑 스톤을 교체해서 착용할 수 있는 방드 쉬크로 인터체인저링, 다양한 소재의 카보숑 스톤 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스모키 쿼츠, 라피스 라줄리 스톤 링 2백만원대, 버클과 카이들을 분리해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포스테 브레이슬릿 버클과 케이플 1세트 각 9백만원대, 모두 프레드, 앤 티드 코인을 모티브로 반드지한 주얼리를 완성한 모베레 컬렉션 네크리스 9백만원대 불가리, 모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디자인의 저스트 앵 글루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까르띠에, 섬세한 비즈 장식에 세심한 인그리아싱이 매력적인 화이트 골드 버클리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러브 브레이슬릿, 왼쪽에 놓인 전용 드 라이너로 오픈할 수 있다. 9백만원대 까르띠에.

(오른쪽 세로 방향으로 놓인 제품을 위부터 아래로) 모던 주얼리의 지평을 연 티파니 T 스퀘어 브레이슬릿, 수직적인 느낌으로 남성에게도 잘 어울린다. 옐로 골드 소재 7백만원대, 옐로 골드 티파니 T 스퀘어 링 1백만원대, 로마자 모티브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틀라스 오픈 링 3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블랙 세라믹과 화이트 골드를 더해 모던하게 완성한 울트라 미니 밴드 링 1백만원대, 세롭게 출시한 쥘링 모티브의 코코 크러쉬 링 2백만원대, 반드지한 로마의 실제 동전을 보석 대신 사용해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모네데 링 7백만원대 불가리, 블랙 세라믹과 화이트 골드로 만든 체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트라 블랙 브레이슬릿 1천5백만원대, 강렬한 화이트 세라믹이 돋보이는 울트라 화이트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모두 사벨 화인 주얼리, 아디터 베이진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티파니 02-547-9488 불가리 02-2056-0172 프레드 02-514-3721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962 까르띠에 1566-7277

(위부터) 블루 타이 브리오니, 그레이 타이 루이 비통.

WWW.THEHANDSOME.COM

TIME

h o m m e

High impact

모던함과 대범함, 강렬함과 심플함이 함께하는, 남자를 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버버리, 프라다, 디올, 샤넬, 에르메스, 버버리, 프라다, 디올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a collection of Us

일찍이 베네통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특유의 광고 캠페인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끄집어내는 일종의 문화기업이었고, 지금은 꽤 흔해진 사회적 책임(CSR)은 처음부터 그 DNA의 일부였다. 여전히 컬러 혁신, 니트 웨어, 그리고 사회적 헌신이라는 브랜드의 변치 않는 세 가지 가치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베네통은 최근 베니스 인근의 작은 도시 트레비소에 위치한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베네통답게 차별된' 발표식을 가졌다. 그 세 가지 가치를 한데 엮은 '우리들의 컬렉션' (A Collection of Us)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WE'를 동시에 선보인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되기로(be ourselves) 했다"라는 어떤 기업의 공언이 반갑게 들리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하지만 아마도 수십 년에 걸쳐 통통 튀는 파격이 무엇인지, '창조적 혁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베네통(United Colors of Benetton)이라면 그럴 법도 할 것이다. 흑인 엄마의 젖을 먹는 백인 신생아라든지 오색친환경 동그란 콩들의 나열, 오바바, 차베스 같은 세계 지도자들의 입맞춤 등을 인상적인 '비주얼로 풀어내는 과감한 광고 캠페인'으로 에이즈, 인종차별, 전쟁과 화합 등 사회적 이슈를 다뤄온 브랜드가 아니던가. 그런 베네통이 이번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과 '더 나은 삶'을 얘기하고 나섰다.

베네통의 본질을 담은 '우리들의 컬렉션'

지난 10월 22일, 베니스 인근의 작고 아름다운 도시 트레비소(Treviso)에 자리 잡은 베네통 커뮤니케이션 센터. 보드랍고 섬세한 니트의 짜임새가 연상되는 영상을 배경으로 베네통의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마케팅 최고 책임자가 브랜드 '본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말을 꺼내자 공감 어린 박수가 쏟아진다. 니트 웨어, 컬러 혁신, 그리고 사회적 헌신이 바로 베네통이 고수해온 가치다. 이어서 발표된 '우리들의 컬렉션(A Collection of Us)'에는 여성들이 지닌 삶의 지혜를 공유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다. 속도 빠른 생산과 소비로 점철된 요즘이지만 브랜드 DNA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베네통의 고집스러운 포부가 반영된 컬렉션이다. 1960~90년대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heritage)을 비롯해 기술(tech), 색(color), 그리고 기능성(performance)을 강조한 네 가지 캡슐로 구성됐다. 베네통 특유의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상이 인상적인 니트 웨어의 향연이 캡슐별로 저마다의 공간에서 펼쳐지고, 환호성이 터졌다.

진정성 있는 글로벌 캠페인, 여성의 삶을 생각한다

베네통에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일부'라고 강조하는 '사회적 헌신'도 이번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를 위해 베네통은 여성들의 더 나은 권리와 삶을 위해 '해방(emanicipation)과 여성권 강화(women empowerment)'를 메시지로 내세운 글로벌 캠페인(WE)을 펼친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얘기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새 글로벌 캠페인은 실제로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를 꾸려가고, 모든 경제 분야에서 온전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우리들의 컬렉션' 광고 캠페인에 세대를 초월한 5명의 여성 모델들이 사이 좋게 등장하는 이유다. 베네통은 이날 전 세계에서 온 기자, 학자, CSR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WE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로 2백만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열띤 토론이 미니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현장의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브랜드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에디터 고성연/트레비소 현지 취재



10 트레비소 온천 도시 트레비소에 위치한 베네통 커뮤니케이션 센터. 마케팅과 사회적 공헌의 혁신을 파헤친 브랜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2 지난 10월 22일 발표된 베네통의 새 컬렉션 '우리들의 컬렉션' 광고 캠페인. 3, 4 1960~90년대 이미 간혹가가 다자한 옷을 내놓은 브랜드 혁신의 의미를 되살린 기하학 문양의 스웨터. 5 '우리들의 컬렉션'과 함께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족된 베네통의 여성권 강화(WE)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TOP COAT

그래픽 패턴과 최상의 패브릭, 정교한 실루엣이 만들어진, 시크한 겨울을 위한
2015 F/W 코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jang duk wha*

골드 버튼 디테일의 네이비 롱 코트
칼로에, 애니얼 프린트 실크 셔츠
셀린느, 딥 그린 컬러 롱부츠 다움.



지오메트릭 플라워 패턴의
캐시미어 코트 바버리 프로섬,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
블랙 리본타이, 네이비 컬러
오버올 맨츠 모두 칼로에.



베이지 캐시미어 더블 코트
폴 스미스, 브라운 터틀넥 니트
루이 비통, 알타를라 블랙 실크
슬립 드레스 페라가모, 체크
팬츠 디스퀘어드2,
그린 컬러 펌프스 지미후.



블랙 & 화이트 체크 패턴 코트,
이노로 착용한 내이비 터틀넥 등
모두 루이 비통, 빈티지 무드의
패턴 셔츠와 스커트 모두 구찌,
버건디 페이턴트 부츠 발렌티노,
스와로브스키 디테일의 골드
네크리스 미네타니.



블랙 & 화이트 트위드 코트
지암바티스타 발리, 블랙 & 화이트
레더 벨트 하이더 아크만,
블랙 터틀넥 보테가 베네테,
골드 디테일의 레드 드레스
루이 비통, 도트 패턴 팬츠
지방시 by 라카르도 티시.



플라워 레이스 디테일의
캐시미어 코트 막스마라,
레이스 팬칭을 다한 화이트
셔츠, 블랙 니트 베스트
모두 셀윈드, 블랙 시어링
퍼 데이브 팬츠 멘디.



버건디 컬러의 캐시미어 롱 코트,
멀티컬러 니트 슬리브리스 톱,
커빙 디테일의 멀티컬러
니트 스카트 모두 다들, 볼드한
골드 드롭형 이어링 빔바이올라,
블랙 팬츠 에르메스,
블랙 페이턴트 앵글부츠
지방시 by 리카르도 타시.

브라운 하운즈투스 패턴의 트윈드
코트 프라다, 블랙 레이스 드레스
페라가모, 블랙 스티플레도 힐 생로랑.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이영
모델 강승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 골로에 02-6905-3670
- 셀린노 02-540-0486
- 다울 02-3480-0104
- 버버리 프롬섬 02-3485-6536
- 올스미스 02-6957-5815
- 페라가모 02-2140-9666
- 디스퀘어드2 02-3445-3107
- 지미추 02-3443-9469
- 루이 비통 02-3432-1854
- 구피 1577-1921
- 발렌티노 02-2015-4653
- 미네타니 02-3443-4164
- 지암바티스타 발리 02-6905-3357
- 하이더 아크만 02-3479-6222
-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 지방시 by 리카르도 타시 02-517-7560
- 막스마라 02-3467-8326
- 켄디 02-2056-9022
- 빔바이올라 02-772-3327
- 에르메스 02-544-7722
- 프라다 02-3442-1830
- 생로랑 02-3438-7628

다이아몬드를 깎은 듯한 크리스탈 보틀 형태, '보드워스' 필름을 이용해 수직선으로 일렬한 병, 미드모아젤 샤넬이 리조 호텔 스위트 발코니에서 바라본던 파리 방돔 광장의 모습을 투영한 병이기에 디자인이 돋보이는 샤넬 No5 빠르팡,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450ml의 대용량 사이즈를 출시한다.



the scent of Legend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매력적인 향기를 담은 아이템이 바로 향수다. 보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내 몸에 걸쳐야 하기에 주얼리만큼이나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것 역시 향수다. 1921년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샤넬 N°5 홀리데이 컬렉션이라면 그러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다. 무엇을 선택해도 기대 이상일 테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손안에 쏙 들어오는 35ml 사이즈로 출시되는 No5 오드 빠르팡과 No5 오프리미에르.

전설의 향수, 샤넬 No5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은 다름 아닌 향수였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향나무 잎이나 줄기에서 즙을 내 몸에 바른 것이 시초였다. 질세미인 양귀비는 온천수에 용뇌향을 풀어 목욕했는데, 이때 버려진 온천물을 향수로 팔아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 이후 이성을 유혹하고자 하는 욕망, 향기가 나는 여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오늘날의 향수를 만들었다. 향수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샤넬의 No5(넘버 5)일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최초의 향수이자, 여성 향수의 대명사, 그리고 1921년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넘버 5'라는 단어가 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특별한 향수다. "잠옷 대신 샤넬 넘버 5를 입고 잔다"고 한 메릴린 먼로의 인터뷰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해방된 미국 병사들마저도 넘버 5를 사기 위해 강방 매장 앞에 줄지어 밤을 지새웠다는 일화 역시 샤넬 넘버 5를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마드모아젤 샤넬이 1대 조향사인 에르네스트 보에게 주문한 것은 '진정한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여자 향수'였다는 고백처럼, 샤넬 넘버 5를 수식하는 최고의 표현은 가장 여성스러운 향수가 아닐까. 가벼운 꽃향기와 더불어 은근히 관능적인 느낌을 지어내는 넘버 5는 향수의 클래식이며, 향수의 역사를 새로이 쓴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첫 번째 근거를 들자면 향수업계 최초로 합성 향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실 때문. 갖가지 꽃이 서로 혼합되어 가벼운 향을 발산하는 알데히드(합성 향료)가 천연 향의 자극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세련되고 유혹적인 분위기로 탈바꿈시킨 것을 두고 마드모아젤 샤넬은 마치 추상적인 꽃다발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완벽한 원료 때문이다. 향료 재배의 중요성을 잘 아는 샤넬은 원료를 전 세계에서 조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재배에 나서기도 했는데, 넘버 5의 핵심 꽃인 재스민이 대표적인 예다. 최고의 향수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그린 파프리카 퀴스킨트의 소설 《향수》에서 '모든 향기의 로망'로 그려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세계 최대의 향료 생산지이자 메카 그라스에서 재스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 5대째 재스민 꽃밭을 소유하고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생산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샤넬 넘버 5 향수 35ml를 만드는 데는 무

려 재스민 꽃 1천2백 송이가 필요한데, 오직 7월에서 10월 사이 약 1백 일 동안만 꽃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상의 원료를 향한 이들의 집념과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샤넬은 원료 선택에서 마지막 상표 부착에 이르기까지 생산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생산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향수 제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샤넬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샤넬을 두고 명불허전이라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별함을 담은 샤넬 No5 홀리데이 컬렉션

1921년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모든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향수 샤넬 넘버 5가 12월을 앞두고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우선 프랑스 그라스 지역의 재스민과 5월 장미의 풍성한 향기를 진하게 담아낸 넘버 5의 정수, No5 빠르팡은 사이즈만으로도 충분히 시선을 압도하는 225ml, 450ml 대용량 버전으로 출시된다. 코코 샤넬과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가 창조해낸 이 특별한 향수는 자신의 시그니처 향으로 삼는 마니아들을 위한 한정판으로, 오직 선주문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다. 1979년 이후 전속 조향사로 합류해 샤넬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지크 폴주가 완성해낸 No5 오드 빠르팡과 No5 오프리미에르는 손안에 쏙 들어오는 35ml 사이즈로 출시된다. 베이스 노트에 바닐라 향을 강조하고 톱 노트에는 시트러스 향을 가미해 오드 투알렛보다 활기 넘치고 발랄한 느낌을 선사하는 No5 오드 빠르팡, 그리고 파워더리한 플로럴 부케, 청량한 공기처럼 가벼운 코보로스 일랑일랑, 평온한 정원을 가득 채운 재스민과 장미, 그리고 달콤한 바닐라와 감각적인 우디 향의 베터베르의 조화가 세련된 감성을 전하는 No5 오프리미에르는 넘버 5의 현대적인 재해석판이다. 수많은 여성이 소장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체취와 어울려 뿌리는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수만, 수천 가지의 다른 향으로 발현함으로써 나만의 향수가 되어주는 샤넬 넘버 5라면 아끼는 가족, 친구는 물론 자신을 위한 선물로도 손색없을 것이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국내에서도 225ml와 450ml 대용량의 No5 빠르팡을 선주문할 수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린스 안티-피디그 아이 세럼
 연유처럼 상쾌한 젤 텍스처의 아이 세럼, 눈가의 주름과 붓기, 다
 크서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피부 재생을 돕는 바이오 그라
 스, 세포의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는 오가너 고지베리, 피부의
 에너지 보유 능력을 보호하는 장대마 성분 등 다채로운 피부 세포 스킨
 오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 카페인 성분이 눈가 붓기를,
 홀스 체스트 너트 성분이 눈의 질은 다크서늘을 완화한다. 20ml 4
 만7천원, 문의 080-542-9052

조르조 아르마니 맨 마스터 클렌저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싫어
 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클렌징 폼. 단순히 피부
 노폐물을 세정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모공을 깊숙하게 정돈해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도를 돕는다. 과도한
 피부를 잡아주는 화산 마해발 콤플렉스,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로
 디올라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하며, 단 한 번의 세안으로도 깨끗
 이 클렌징되는 것이 특징이다. 150ml 4만2천원. 문의 080-
 022-3332

SK-II 맨 피아세 트리트먼트 에센스 SK-II의 핵심 성분인 피페
 라익산을 90% 이상 함유한 남성용 피아세 트리트먼트 에센스. 피부
 결, 피부 톤, 탄력, 표정 라인, 광채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눈에
 띄게 개선시키는 제품으로, 기존 피아세 에센스와의 차이점은 신뜻
 하고 시원한 사용감을 선호하는 남성들을 위해 클링 에이전트 성분
 을 함유했다는 점. 그 때문에 사용후에도 오랜 시간 시원하고 상
 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75ml 9만원. 문의 080-023-3333

셀화수 맨 분유에센스 세안 후 가장 첫 단계에 사용하는 워터-겔
 타입의 안티에이징 한방 에센스. 스킨과 에센스를 따로 사용하기
 귀찮아하는 남성들을 위해 올인원 제품으로 탄생했다. 경장단, 인
 산 추출물, 맥문동 추출물 등 고귀한 한방 성분이 피부 본연의 자생
 력을 키워 주름, 탄력, 착색을 케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센스
 하-린으로도 깊고 풍부한 보습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이다. 140ml 7만3천원. 문의 080-023-5454

샤넬 블루 드 사벨 에프터 셰이브 밤 밤 타입 제형이 끈적임 것이라
 는 편견을 버릴 것. 신뜻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선호하는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밤 제형의 에프터셰이브, 끈적임 없이 스며들고
 피부에 보습력을 씌워 준다. 찬 바람 등에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
 정시키고, 효과만큼이나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남성 향
 수 블루 드 사벨의 매혹적인 시트러스 향을 담았다는 것. 향수와는
 다르게 피부와 어우러져 풍기는 은은한 향취가 세련된 남성의 이미
 지를 부각한다. 9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나스 스킨 토탈 리플레시빙 아이크림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랑수아
 나스가 사랑하는 제품으로 잘 알려진, 질감이 푸딩처럼 촉촉한 아
 이크림. 남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끈적임 없는 질감으로 지
 치고 예민한 눈가를 부드럽게 케어한다. 독자적인 라이트 리플레싱
 콤플렉스™ 테크놀로지가 빛을 반사해 착색해지거나 수분 눈가를 더
 욱 완화하게 가루준다. 꾸준히 사용하면 인스까지 훨씬 밝아지는 것
 을 느낄 수 있다. 15ml 8만5천원, 문의 02-6905-3747

디올 올드 에프터 셰이브 밤 면도 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끔거
 린다면 디올의 에프터 셰이브 밤을 도통하게 빌라줄 것. 피부가 자
 극민감할 땀, 알코올 성분이 든 스킨이나 가벼운 에프터셰이브 오일
 성분을 함유해놓은 밤 타입이 더 효과적이다. 풍부한 보습력과 수
 영 효과를 지닌 이 제품은 피부의 붉은 기, 발진 등을 빠르게 진정
 시킨다. 은은하게 풍기는 바닐라 향 역시 우아하고紳士적이다.
 100ml 7만원, 문의 080-342-9500

비오థर्म 포스 수프림 크림 '4D 입체 피부 효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피부 표면을 총총하게 채워주고 단단하게 세워 탄력 있고 입체적인
 페이스 라인으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강한 자생력을 갖춘
 허귀 해조류 성분인 유스 알기™가 피부의 탄력을 강화하고, 프록
 실린™ + 아데노신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며, 리프 콜라겐™이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가구에 대해 살리신과 비타민
 E 성분이 피부결 개선을 돕는다. 50ml 8만9천원. 문의 080-
 022-3332

프래쉬 블랙티 파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바르고 집중적인 케어를
 원한다면, 바르고 자지만 하면 숙면을 취한 듯 한결 탄력 있고 부
 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이 수면 마스크를 놓여보자. 피부 탄력
 을 높이는 펩타이드 콤플렉스,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블랙베
 리 잎 추출물, 밤에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는 벨드나무꽃을 함유
 해 밤 동안 흐트러진 피부 밸런스를 바로잡고, 낮 동안 노출되는 유
 해 환경 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100ml 13만8천원, 문의
 080-822-9500

퐁 포드 포 맨 안티 피디그 아이 트리트먼트 디자이너 퐁 포드에게
 아이크림은 사치가 아닌 필수다. 눈은 얼굴에서 노화와 피로를 가
 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 이런 의미에서 탄생한 이 아이트리
 트먼트 크림에는 인뮤징 콤플렉스를 첨가해 눈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키고 주름을 완화하는 다기능 효과를 선사한다. 끝이 은
 으로 된 애플리케이터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눈의 붓기를 빼주는
 가를 생기 있어 보이도록 가루준다. 15ml 10만6천원, 문의 02-
 3479-1436 에디터 권유진



* 함께 세련된 세이빙 브러시와 면도기는 아쿠아
 디 파르미 콜라지오네 비비에레 세이빙 브러쉬 &
 레이저, 각 47만원, 42만원, 문의 02-517-5218

Gentle care

아직까지도 피부에 스킨조차 바르지 않는다면 반성할 것.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자들 역시 꾸준한 안티에이징 케어에
 집중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어리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맨즈 크즈메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agical Moisture

한 단계 진일보한 세럼을 찾는다면 여기를 주목하길. 젤-워터-오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 제형에
 세럼과 오일의 6:4 매직 비율로 채운 헤라의 '오일 세럼 매직 포몰라'가 세럼처럼 산뜻한 첫 느낌과 오일처럼
 촉촉한 마무리를 선사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세럼처럼 산뜻하게, 오일처럼 촉촉하게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시리게 느껴지는 환절기, 부쩍 예민해진 피
 부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유독 건조하고 찬 바람이 심하게
 부는 가을 겨울 기후의 특성상 우리나라 여성들은 몇 해 전부터 페
 이스 오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흐트러진 피부 컨디션
 을 다독여주기에 오일만 한 것도 없기 때문. 이러한 관심은 물론 피
 부의 유명 여배우들이 오일을 사용해 보습과 탄력을 동시에 관리한
 다는 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너도나도 빠져든 오일 제
 형의 아이템은 화장대 한쪽에 쟁겨두면 한겨울을 날 때까지 든든하
 고, 쓰면 쓸수록 빠져드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화장품도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 달라 미끈거리고 번들거리는
 감촉에 난색을 표하거나 모공이 막혀 뽀루지가 날까 불안해 심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었다. 그러나 오일에는 어떤 스킨케어
 제품보다 다양한 영양과 효능이 농축되어 담겨 있으니, 오일의 이런
 혜택을 놓친다는 건 윤광 피부를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만큼이나 안
 타까운 일이다. 오일의 끈적이는 텍스처를 부담스러워하던 이들을
 위한 희소식이 여기에 있다. 첫 느낌은 세럼처럼 산뜻하지만 마무리
 는 오일처럼 촉촉하게 얇은 막으로 덮여줘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과 은은하게 빛나는 효과를 선사하는 헤라의 '오일 세럼 매직 포
 몰라'가 그것이다.

극강 보습을 위한 '셀-바이오 모이스트'™ 효과

우선 여타 오일 제품과 비교를 불허하는 혁신적인 트랜스포머 제형
 에 주목해야 한다. 오일 광채를 띠는 산뜻한 젤 타입 제형이 피부 위
 에 퍼 바를수록 워터 타입으로 바뀌고, 다시 오일로 변해 피부 깊숙
 이 빠르게 스며들어 빛나는 윤광 피부를 완성한다. 이는 세럼과 오
 일을 6:4의 골든 비율로 담고 헤라만의 신기술을 적용한 덕에 가능
 했다. 텍스처가 어찌나 가벼운지 매일 아침저녁 사용하기에 부담스
 럽지 않을 정도로 산뜻하다. 또 보습과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일광일
 량 블렌딩 오일을 42% 함유하고, 이를 초미세 입자로 잘게 쪼개는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흡수시
 키면 마치 그물을 펼친 듯 세럼이 얼굴 구석구석 스며든다. 피부 안
 쪽에서 세럼을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며 피부가 쫄쫄해지는 느
 낌을 받는 것. 여기에 피부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셀-바이
 오 모이스트'™ 기술로 영양 가득한 오일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걸걸
 이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 결 보습뿐 아니라 속 보습까지 해결해줘 마
 치 수분 마스크를 한 듯 마법 같은 촉촉함을 선사한다. 그뿐 아니라
 탄력과 윤기는 물론 주름 개선 효과까지 발휘하는 데다 원래 피부의
 일부가였던 듯 고르게 발리고 흡수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피부 세포 하나하나 수분과 생명력, 광채를 채운다. 여기에 마음까
 지 편안하게 하는 은은한 향의 일광일량 에센셜 오일을 함유, 피부
 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아로마테라피 효과까지 겸해 스
 파를 받은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보습과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유
 기농 올리브 오일,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마카디미아 너트 오
 일, 로즈힙 오일 등 식물성 천연 오일을 블렌딩했다는 점도 기분 좋
 은 향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다. 쿠션 파운데이션과도 찰떡궁합이
 라 자연스러운 윤광 메이크업을 돕고, 나이트 케어 시 크림과 1:1 비
 율로 섞어 수면 팩으로 활용하면 더욱 세심한 보습 케어가 가능하
 다. 오일과 세럼의 장점만을 결합한 매직 비율이 올라가는 당신의 피
 부 컨디션을 책임질 테니, 오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믿고 시도해
 보자. 40ml 8만5천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Man in red

카리스마 넘치지만 섹시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현대 남성들이 반길 만한 향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름하여 페라리 맨 인 레드. 열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페라리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이 향수는 슈퍼카 라 페라리를 연상시키는 보틀로 강인한 남성의 향기를 전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드림카의 향기를 담다, 페라리 맨 인 레드

페라리는 남성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평생의 절대적 드림카이자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존재, 부와 낭만의 상징, 그야말로 강렬한 황홀감을 선사하는 브랜드인 것이다. 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를 분석하는 영국 컨설팅 회사 '브랜드 파이낸스'는 2013년과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1위에 구글, 코카콜라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 5백 개를 제치고 페라리를 선정했다. 전 세계 애호가들에게 페라리는 단순히 브랜드 충성도를 넘어 추종의 의미보다 더 큰, 심지어 종교처럼 숭배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처럼 절대 마력을 지닌 페라리를 향기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이번에 출시되는 페라리 맨 인 레드(Ferrari Man in Red)는 언제나 열정적인 삶을 사는 페라리 맨을 완벽하게 표현한 향수다. 섹시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이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강렬한 모험을 즐기지만 부드러운 내면을 지닌 남성 향조는 프루티 앰버 푸제르(Fruity Ambery Fougere)로, 레몬차림 특 쓰는 프레시함이 감각을 일깨우는 베르가모트 향이 시선을 일린다. 이어 풍부한 과즙의 레드 애플과 이국적이고 스파이시한 카르다뎀이 어우러져 페라리의 파워풀한 엔진을 담은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F1 경주 기차량 생동감 넘치는 톱 노트에 뒤이어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미들 노트가 부드러운 남성미를 발한다. 감미로운 골든 플럼과 오렌지 블라썸, 독특한 시트러스 향을 지닌 라비딘 조화가 페라리 맨이 갖춰야 할 특별한 존재감을 부여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미치 숲 속에 머무는 것 같은 상쾌하고 그윽한 향의 시더우드, 바닐라처럼 달콤한 통카 빈, 따뜻하고 파우더리한 라다남이 어우러지며 마무리된다. 이렇게 대조적인 향의 조합이 남기는 진형은 후각이 발달한 여성들의 노리에 오래 남아 매혹적이고 중독적으로 다가온다. 이성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페라리 맨 인 레드의 향은 향수 외에 애프터 셰이브 로션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 평소 향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남성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라 페라리의 섹시한 셰이프를 담은 보틀 디자인

매끈하게 빠진 보틀과 처음 조우한다면 미치 페라리의 파워풀한 스피드를 경험한 듯,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도 있겠다. 강렬한 레드 컬러, 보틀 위의 우아한 곡선이 슈퍼카 라 페라리의 섹시한 뒤태와 꼭 닮았으니. 향수병 위쪽에 자리한 브랜드의 로고와 글로시한 실버 컬러의 메탈 밴드는 페라리 맨이 지향해야 할 전설함을 부각한다. 단번에 페라리의 제품임을 눈치챌 수 있는 정중인의 뛰어난 로고 장식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전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렬한 파워, 그럼에도 부드러운 시승감, 럭셔리함과 우아함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갖춘 페라리의 슈퍼카가 전하는 모든 매력을 이 향수 한 병을 통해 느껴보기를. 문의 080-800-8809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페라리 맨 인 레드 오드 투왈렛, 페라리 맨 인 레드 애프터 셰이브 로션.



ultimate Serum

갈수록 건조해지는 날씨,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킨케어 단계를 줄여주고 피부를 더 촉촉하며 탄력 있게 가꿔주는 더블 텍스처의 힘에 의지해보는 것은 어떨지. 황금 비율로 농축된 강력한 수분과 오일 베이스 성분이 섞일수록 내 피부의 보약이 되는 클라란스의 '더블 세럼'이라면 생기 넘치는 동안 피부의 싱그러움을 선사할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생기 있는 동안 피부로, 클라란스 더블 세럼

피부는 우리 몸에서 환경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최전방에 위치한다. 특히 환경 기는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이니만큼 건조하고 따뜻한 대기에 수분을 빼앗겨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강한 가을 햇볕에 노출되어 전에 없던 기미, 주근개 등의 칙칙한 잡티가 자리 잡기 쉽다. 가을철, 피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가혹한 외부 환경을 이겨낼 에너지 공급받는 것. 특히 이 계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화장품이 있다. 그중에서도 소량으로도 피부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세럼은 필수적인데, 클라란스의 더블 세럼은 이 계절 피부 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30년간 안티에이징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지속해온 클라란스의 '더블 세럼'이라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다. 세럼 1병에 수분과 오일 베이스의 포플러가 최적의 상태로 보관 되어 있다가, 펌핑 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비율로 섞여 나와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가지나 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식물 추출물과 클라란스만의 노후우가 축적된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탄생한 '완벽한 에이지 컨트롤 제품'이라는 타이틀답게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인 영양, 재생, 보호, 수분, 산소 공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비라클한' 효과로 1985년 탄생 이후 지금까지 최고의 세럼으로 많은 여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30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세럼과 데이&나이트 크림

요즘엔 잠깐 바깥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땅기는 것이 느껴진다. 가을철은 그야말로 피부 전신 상황.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환경기 스킨케어 플랜에 돌입해야 하는데, 이때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클라란스다. 클라란스라는 브랜드 이름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큰 신뢰를 준 브랜드다. 토탈 V 에센스부터 보디 펌핑 크림, 페이스 오일까지 매력적인 가격에 확실한 효과로 믿음을 주었다. 더블 세럼은 브랜드의 매력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제품이다. 두 가지 세럼이 1병에 들어 있어 뛰어난 제품 효과와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더블 세럼은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스마트한 패키지를 개발한 것도 여성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화장품에 대한 클라란스의 집념을 실감케 한다. 피부에까지 신선하게 텍스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 더블 세럼을 사용하면 수분이 즉각적으로 공급되어 영양분 침투 속도와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증가하며, 피부 보호와 관련된 유전자 활동이 증가됨으로써 피부 조기 노화가 예방되고 콜라겐 합성율이 향상되어 재생 기능을 돕는다. 그 때문에 피부는 더욱 힘 있고 탄력 있어지며, 주름은 열어지고 모공은 줄어들어 피부 톤이 한층 더 고르고 화사해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한다면 프랑스에서 시간을 되돌리는 크림으로 불리는 엑스트라 펌핑 크림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트라 펌핑-데이 크림은 즉각적인 리프팅, 보습 효과를 제공하여 공해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엑스트라 펌핑-나이트 크림은 주름 방지와 재생 효과, 밤사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산화 방지 효과, 다크 스폿 예방 효과 등이 탁월하다. 더블 세럼과 함께 사용하면 푹 쉬고 난 듯 생기와 탄력 넘치는 동안 피부로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클라란스 더블 세럼 30ml 12만원, 클라란스 엑스트라 펌핑 크림 각 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클라란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클라란스 매장을 방문하시는 독자분들께 생기 있는 동안 피부를 완성하는 '클라란스 더블 세럼' 7일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 **중정품** 클라란스 더블 세럼 7일 체험분(2mlX7개) ◆ **기간** 2015년 11월 5일~11월 15일
 ◆ **교환매장** 클라란스 신세계 본점·강남점, 현대 본점·무교점·민교점, 롯데 본점·잠실점 ◆ **문의** 080-542-9052
 ※ 중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한정합니다.

New Heaven

개성 있는 패턴과 다양한 컬러 블로킹, 가죽, 펠 소재를 믹스 매치해 유니크하고 유행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한 '뉴 헤븐 글러터 스니커즈'. 슈콤마보니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슈콤마보니만의 노하우를 담은 자체 개발 몰드와 메시 내피, 오솔라이트 인soles을 사용해 통풍성과 향균·소취 기능까지 두루 갖췄다.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2cm의 히든 굽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밝힌 네온 컬러와 레오파드 패턴, 글러터 장식을 믹스한 뉴 헤븐 글러터 스니커즈, 블랙 가죽 베이스에 레오파드 패턴을 더해 럭셔리함을 강조한 뉴 헤븐 글러터 스니커즈, 화려한 글러터 소재로 포인트를 준 유니크한 뉴 헤븐 글러터 스니커즈 각 299,800원 모두 슈콤마보니.



제품 촬영 박건주 인텔 사진 제공 슈콤마보니

Steal it style

배우 공효진.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트렌드가 된다. 그만큼 파워풀한 영향력을 지닌 패션스타인 그녀가 이번엔 컨템퍼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Sucomma Bonnie)'와 함께 특별한 슈즈를 선보인다. 흠치고 싶을 만큼 탐나는 그녀의 스타일과 슈즈 컬렉션.



(왼쪽부터) 블랙 메탈 참 장식이 매력적인 4.5cm 굽의 익스큐즈미 초커 앵글부츠, 언뜻 보이는 인감 가죽의 섹시한 블루 컬러와 록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메탈 참 장식이 돋보이는 익스큐즈미 초커 앵글부츠, 발목을 조이지 않는 웨스턴 스타일링 판타지인 서 스타일링리본 록을 완성해줄 8.5cm 굽의 익스큐즈미 초커 앵글부츠 각 399,800원, 399,800원, 429,800원 모두 슈콤마보니. 문의 1588-7667



Excuse me!
공효진과 슈콤마보니가 콜라보레이션한 완성한 익스큐즈미 블랙 레더 부티, 초커(Choker), 록 시크 무드의 세련된 메탈 참 장식이 포인트다. 굽이 4.5cm인 제품부터 8.5cm의 웨스턴 부츠 스타일 등 어느 룩에나 세련되게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인다. 에디터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슈콤마보니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슈콤마보니 매장을 방문하시는 독자분들께 슈콤마보니 구두 혜택을 증정합니다 (30만원 이상 구매 시 '보니 클러치' 증정).
◆ 증정품 슈콤마보니 구두 혜택 ◆ 기간 2015년 11월 1일~11월 30일 ◆ 교환 매장 전국 슈콤마보니 오프라인 매장(아웃렛 제외)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Winter luxe

최고급 프랑스 구스다운을 사용해 하이엔드 다운 재킷의 정수를 보여주는 몽클레르(Moncler). 울겨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윈터 컬렉션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귀여운 시슴 털버블 연상케 하는 프린트가 사랑스러운 여성 미디엄 다운 재킷 2백32만원 몽클레르 메인.



깨끗하고 화사한 화이트 컬러의 여성용 다운 재킷 2백3만원, 사랑스러운 폭스 발우로 포인트를 준 니트 모자 55만원 모두 몽클레르 메인.



와이드한 A라인으로 퍼지는 실루엣이 우아한, 폭스 퍼 & 패딩 디테일의 여성 니트 카디건 1백88만원 몽클레르 메인.



포인팅 룩에도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구스다운 남성 다운 재킷. 코요테 페로 포인트를 주었다. 3백19만원, 그레이 컬러 장갑 30만원, 모두 몽클레르 메인.



와이드한 A라인 소매와 몽글산 영스 퍼가 포인트인 여성 다운 재킷 3백19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부드러운 블랙 폭스 페로 트리밍한 패딩 모자 1백30만원 몽클레르 메인.



구스다운 패딩과 부드러운 터치감의 무튼이 조화를 이룬 남성용 다운 재킷 6백14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상징적인 로고와 엠블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 니트 모자 37만원 몽클레르 메인.



부분적으로 매치한 따스한 질감의 그레이 패브릭과 후드 라인의 풍성한 코요테 퍼가 멋스러운 남성용 다운 재킷 3백91만원 몽클레르 메인.



볼륨감 있는 폭스 퍼 장식과 허리 라인의 버블 벨트 디테일이 럭셔리한 미디엄 여성 다운 재킷 2백47만원 몽클레르 메인.



비커 재킷 스타일의 앙가주 구스다운 패딩 남성용 다운 재킷 3백19만원 몽클레르 메인. 문의 02-514-0900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조선일보 후원 몽클레르 메인



짐금장치를 얹어 가장 인적이 살짝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이 피카부 백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왼쪽부터) 한국 한정판으로 출시한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레오파드 레플리카 피카부 백, 전 세계적으로 품절을 거듭하고 있는 마이르 사이링 피카부 백, 이번 시즌 펜디의 메인 소재인 사이링 디테일 레플리카 피카부 백.

a timeless Icon

이번 시즌 섬세한 소재와 풍부한 색조, 간결한 선, 정교한 테크닉으로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펜디. 자신 기금 모금을 위해 3명의 아이코닉한 여성들과 함께 제작한 특별한 피카부 백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름하여 '사울 피카부 프로젝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트렌디함과 장인 정신의 조화, 펜디 2015 F/W 컬렉션

스위스 여류 화가이자 조각가, 스위스의 50프랑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소피 토 아베르-아르프(Sophie Taeuber-Arp). 칼 라펠트는 그녀가 남긴 기하학적 추상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시즌 펜디의 기성복 컬렉션을 완성했다. 액세서리 라인도 진두지휘하는 살비아 벤추리니 펜디의 디자인 일부에도 그녀의 그래픽 작업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소피 토아베르-아르프의 예술적 감성은 펜디가 추구하는 기하와 조화하면서 구성주의를 연상시키는 의상으로 재해석되었다. 스커트 위에 이중으로 늘어뜨려 화려하게 장식한 패시어나 컬러 블록, 병렬 배치, 기하학적 프린트 등은 그야말로 패션의 기하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펜디의 독보적인 기술을 기이한 시어링(shearing, 깎은 양털) 소재, 선명한 구조와 볼륨감을 다룬 가죽, 탁월한 재단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모직 걸감의 다운 재킷 등에서는 실험 정신과 노련한 장인 정신의 완벽한 조화라는 펜디의 울음을 찡찡하게 느낄 수 있다. 액세서리 역시 패시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했고, 컬러 블록이나 사이링 소재를 주로 활용했다. 피카부 라인에는 클라치백을 추가해, 이번 시즌 첫선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클래식의 정수, 피카부 백

펜디의 피카부 백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클래식 백으로 손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입구가 반쯤 열려 있어 내부의 패턴이나 소재가 드러나는 유니크한 디자인, 그에 어울리는 까몽 놀이(Peekaboo)라는 재치 있는 이름, 여기에 고급스러운 소재와 수공예 기법, 정교한 디테일까지 가미했으니. 일부 매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셀라리아 가죽, 벨가죽, 티조가죽, 모피 같은 소재는 물론 프린트, 자수, 부속품 등의 디테일과 컬러까지 골라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주문 제작 서비스까지 제공하니, 세상에 오직 나만을 위한 가방을 완성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지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상황 곡선을 그리는 높은 판매량은 물론 셀라브리티, 방송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장 트렌디한 가방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최근 한국 한정판 피카부 백이 출시된 것 역시 국내 피카부 백의 인기를 증명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피카부 프로젝트 전시회

펜디는 피카부를 통해 판매를 넘어서 자신 모금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런던에서는 키즈 캠페인, 도쿄에서는 예술대학의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된 특별 피카부 프로젝트가 그중으로, 이번엔 서울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인은 올림픽 피겨 챔피언 김연아와 배우이자 패션스타 하지원, 고소영. 이렇게 멋진 3인의 여성들이 불가능이란 없다는 펜디의 철학 아래 살비아 벤추리니 펜디는 물론 펜디 아틀리에 장인들과 긴밀히 작업해 자마다 특별한 피카부 백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세상에 단 3개뿐인 피카부 백은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분다상 창당 이벤트 스페이스에 전시된다. 런던 피카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가수 이엘, 건축가 자하 하디드, 톰 모렐 카라 밀라비니, 배우 귀네스 펠트로 외 여러 MTO(Made to Order, 주문 제작) 피카부 백과 도쿄 피카부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안나 델로 루소 피카부 백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내 패션 팬들에게는 커다란 볼거리이자 흥미로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3인의 셀라브리티들이 완성한 서울 MTO 피카부 백은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되는 K옥션의 온라인 경매(www.k-auction.com/tendi)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 수익금은 셀라브리티가 직접 선택한 자선단체에 각각 기부할 예정으로,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김연아는 전 세계 기림도상국 어린이의 보호 사업을 위해 유니세프에, 국제 의료 NGO인 오페이션 스마일(Operation Smile)의 글로벌 홍보대사인 하지원은 어린이 수술을 돕는 국제 비영리단체에, 2011년부터 대한사회복지회에 매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소영은 저소득 양육 미혼모 가정과 입양 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온라인 경매는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그녀들의 센스 넘치는 감성을 덧입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카부 백도 영토고 동시에 자신 기금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는 기쁨과 뿌듯함을 동시에 누리보길, 문의 02-2056-9023 에디터 배미진

1 가장한 컬러 블록과 뛰어난 완성도의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가죽 피카부 백 레플리카 피카부 백, 2 펜디의 열렬한 팬들을 자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코닉 올림피아 김연아 레플리카, 3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았던 펜디 컬렉션의 베스트 아이템 모델인 사이링 소재를 다룬 라지 피카부 백을 들고 있다, 4 펜디 2015 F/W 컬렉션의 구성주의 콘셉트기둥보이는 컬러 블록 레플리카 피카부 백.



Veritable a second

신제품이 탄생할 때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예저 르쿨트르. 최근에 내놓은 야심작은 1958년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지오피직' 컬렉션이다.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는 밸런스 휠 운동을 통해 힘을 모았다가 1초가 되었을 때 초침을 튕겨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진정한 1초를 재탄생시킨 '트루 세컨드 시스템'이 선사하는 기계식 위치의 진정한 가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958년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지오피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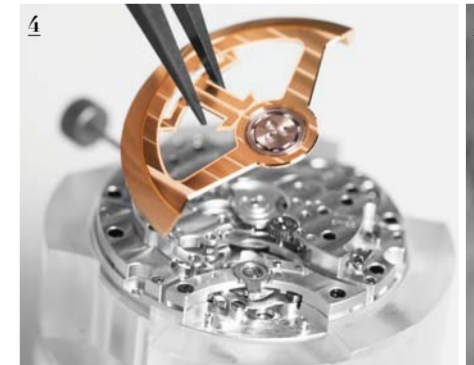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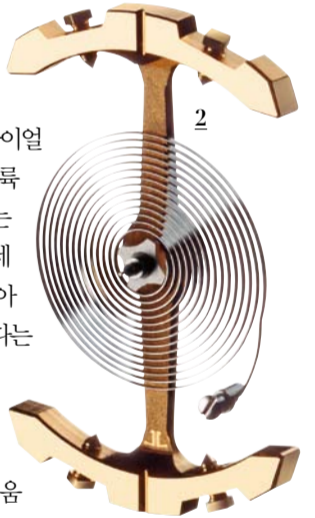
예저 르쿨트르를 최상의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언급하는 데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만큼 시계 애호가들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무브먼트 제조사로 시작해 지금은 부품부터 조립, 완성에 이르기까지 100% 인하우스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시계 브랜드인 데다가, 1백80여 년 동안 창조해온 기계식 무브먼트 수만도 1천2백49개, 그중 4백13개 이상은 시계 제조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품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에 워치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계는 새로운 '지오피직(Geophysic)' 컬렉션이다. 국제지구물리관측년인 1958년, 지구의 환경을 연구 중인 과학자들을 위해 발명된 크로노미터 '지오피직'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했다. 오리지널 지오피직 모델의 향수를 자극하는 심플한 디자인의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와 다이얼에서 24개 타임 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월드 타임 버전을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이 그것. 예저 르쿨트르의 시계들이 그러한 것처럼 클래식함과 절제미, 균형미는 물론 순수한 시계 본연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여기에 '자이로랩'으로 명명된 새로운 밸런스 휠을 개발해 탑재하고, 1초에 한 눈금씩 딱딱 끊어 지듯 초침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인 '트루 세컨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여타의 브랜드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차별화된 매뉴팩처 브랜드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39.6mm 사이즈의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는 시계의 유연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다이얼 위에서 초침의 흐름을 기본 좋은 리듬감으로 읽을 수 있도록 1초에 한 눈금씩 초침이 진행되는 시계다. 사실 대부분의 시계 애호가들은 기계식 시계에 적용하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초침인 '스텝 세컨드'에 매료되어 있다. 초침이 똑똑 끊겨 흘러가는 방식은 쿼츠 무브먼트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방식은 기계식 시계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예저 르쿨트르는 브랜드가 보유한 고도의 메커니즘을 적용해 '트루 세컨드 시스템'을 완성해냈다.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에 탑재한 칼리버 770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무브먼트에 동력을 공급하는 회전추(로터)가 부품 조립 없이 하나의 단위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칼리버 770은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슈퍼카의 엔진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오라를 발산한다. 1958년 오리지널 모델이 그러했듯 다이아몬드 워치에 사용하는 스크루 케이스 백을 고정할 때에 방수 기능 또한 뛰어나니 완벽한 시계의 조건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다.



SAEPLR150 0000000

시계 컬렉터를 위한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

예저 르쿨트르가 선보인 또 하나의 시계는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이다. 여기에 장착한 칼리버 772 무브먼트 또한 트루 세컨드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 시계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다이얼에 세계지도가 그려진 시계를 보고 싶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륙은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표면보다 볼록 올라와 있으며 바다를 질고 얇은 블루 컬러로 처리했다. 인접에 회전하는 링을 통해 세계 24개 도시의 표준 시간대를 읽을 수 있는데, 푸시 버튼이 아닌 하나의 크라운을 통해 전 세계 시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기만 하다. 게다가 한 번 세팅하면 사용자가 세계를 누비는 동안 시간대별로 새롭게 세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행자는 자신의 시간만 조정하면 된다. 현지 시간은 분과 초가 정확성을 잃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시침이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여 맞춰지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정교하고 독특한 기능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전통을 계승하는 단순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 정신을 이어가며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저 르쿨트르. 1천 시간 자체 검수 시스템으로 전하는 신뢰, 변치 않는 가치와 미학은 수많은 워치 마니아와 컬렉터가 예저 르쿨트르를 고집하는 이유일 것이다. 문의 02-6905-3998 에디터 배미진



1(왼쪽) 정교한 매력을 지닌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 핑크 골드 모델. (오른쪽) 전 세계 시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 다이얼 직경이 41.66mm이며 스틸과 핑크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2 공기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직경이 1.5mm인 '자이로랩'. 3 골드 소재와 블루 다이얼의 조화가 클래식한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 핑크 골드 소재 모델. 4, 5 골드 소재의 심금 블록(부품)의 조립 없이 하나로 이루어진 회전추로 완성된 로터.



New Heart of Seoul

최고급 호텔 체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포시즌스가 '서울의 심장' 광화문에 입성했다. 국내 호텔 가운데 최다 레스토랑, 전 세계 포시즌스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피트니스 클럽, 국내 최초의 호텔 네일 바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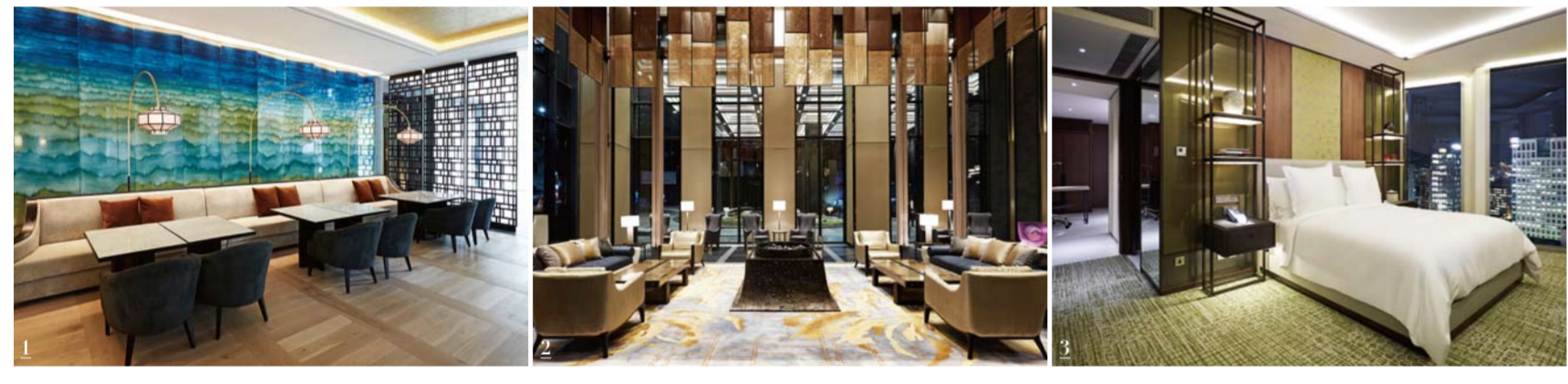
서울 광화문에서 포시즌스 호텔의 품격을 마주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알 워런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최대 주주인 포시즌스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호텔 수가 1백 개 미만이지만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로 유명하다. 글로벌 6성급을 표방하며 공사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포시즌스 서울이 드디어 성공리에 입성했다. 광화문사거리라는 탁월한 입지 덕분에 사람들이 바빠 오가는 광화문 일대 빌딩과 고즈넉한 고궁 풍경, 한눈에 들어오는 청와대 풍경이 교차되며 과거와 현재가 모호하게 공존하는 듯한 이색적인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모던하게 해석한 한옥 창호 문양의 문양, 소나무 등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살려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신중 쓴 흔적이 역

력한 듯 느껴지는 곳은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장 등의 부대 시설이다. 포시즌스 서울의 레스토랑과 바의 숫자는 7개로 국내 최다다. 중식과 일식은 프라이빗 룸의 면적이 넓고 그 수도 최대 수준이다. 뷔페, 일식당, 중식당, 이탈리아 레스토랑, 칵테일 바 등의 레스토랑과 바를 책임지는 각 세프들은 신라 호텔을 포함한 각종 최고급 호텔에서 영입한 유명 세프와 바텐더이고, 뷔페 레스토랑 바베크기에는 호텔 공사 중 발굴된 조선 시대의 유적을 그대로 보존·전시해 흥미로운 스토리와 볼거리까지 제공하며 차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포시즌스 호텔 체인 중에서도 가장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피트니스 클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호텔 내의 피트니스, 스파,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교류와 모임을 갖는 성향 때문에 호텔 멤버십(회원권)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

는 한국 실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피트니스 클럽과 수영장, 사우나, 골프 시뮬레이션 연습장 등을 갖춘 765㎡ 규모의 '포시즌스 클럽 서울'은 3개 층으로 구성됐으며, 전 세계 포시즌스 호텔 가운데 유일하게 냉탕, 온탕, 건식과 습식 사우나를 갖췄다. 이 밖에 일찍이 셀러브리티들의 관심을 받아온 포시즌스 호텔 스파는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 비올로지 호세쉬를 스파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드러냈고, 국내 호텔 최초로 네일 바를 오픈해 여심을 자극했다. 침대의 폭신함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객실 서비스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포시즌스의 세심한 서비스를 받는 경험, 기대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즐거움이다. 문의 02-6388-5042 **에디터 배미진**

1 포시즌스 서울 1층에 위치한 라운지 마루(Maru). 애프터는 티 세트는 물론 다양한 차와 식사를 즐길 수 있다. 2 라사피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포시즌스 서울의 로비 라운지. 3 경복궁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포시즌스 서울의 객실.



It's so Hot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이 가장 주목하는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가 국내 론칭 2년 만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자유롭게 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패션에 건축과 아트, 인테리어가 융합되길 꿈꾸는 아크네의 오프닝 파티, 그 현장 속으로.

아크네 스튜디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지난 9월 18일, 청담동 명품 거마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 어귀가 북적였다. 멀리서 보면 마치 콘테이너 박스 같기도 하고 조명 박스 같기도 한 건물에 내로라하는 셀러브리티와 패션 피플들이 모여들었는데, 불투명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내부가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은 9월 19일 새로 문을 연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패션을 좀 아는, 소위 패션 피플이라면 스웨덴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를 모르는 이는 없다. 몸을 꼭 감싸는 오버사이즈의 아크네 무튼 점퍼와 무튼 이베로 록 핏까지 미니멀한 아크네 룩 코트는 아크네 스타일이라는 수식어를 단 수많은 미투 상품을 탄생시켰을 정도. 실용적이면서도 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는 아크네가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전 세계 매장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아크네 스튜디오는 모든 매장이 각각 다른 개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으로, 청담 스토어는 저명한 건축가 소피 하스가 디자인을 맡았다. 소피 하스는 패션 에디터 출신의 건축가에게 오지 아이모토, 폴 스미스, 플로에 등 많은 패션 브랜드의 매장 건축은 물론 영국왕립미술원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회를 담당해온 인물. 절제되고 심플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거칠고 무거운 느낌의 콘크리트로 이뤄져 있다. 콘크리트 벽면 안으로는 실버 소재의 선반과 행어가 자리해, 아크네 스튜디오의 제품들처럼 담백하지만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덕에 일부 매장에서 소량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아크네 스튜디오 옷과 액세서리, 남성복과 키즈 컬렉션까지 전 리얼을 모두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반은 소식 중 하나다. 게다가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이곳에서

만 구입할 수 있는 '남녀 공용 스웨트셔츠 1백 벌'을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화성 마이를 살려낸 비롯해 청담점 건축을 맡은 소피 하스, 그녀의 딸이자 세계적인 톱 모델 에디 캠펠과 올림피아 캠펠,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지드래곤과 스타인원즈도 인성호, 배우 고아성, 정은채, 모델 김원준, 박성진 등 오프닝 파티에 참석한 이들의 리스트도 어마어마하다. 행사의 화룡정점은 파격적인 퍼포먼스였다. 뉴욕을 토대로 활동하는 트렌드젠더 행위 예술가 보이아윈드도 동향적인 움직임으로 참석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여장 게이 래퍼로 유명한 미키 블랑코는 파티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대범하고 자유로운 아크네 스튜디오의 DNA를 대변하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문의 02-542-2290 **에디터 권유진**

1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크네 스튜디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외관. 2, 3 아크네 스튜디오의 2015 F/W 룩을 감각적으로 재현한 배우 고아성과 정은채. 4 아크네 스튜디오 마니어로 알려진 지드래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5 (오른쪽부터) 아크네 스튜디오 매장을 설계한 건축가 소피 하스, 그녀의 딸인 세계적 톱 모델 에디 캠펠과 올림피아 캠펠.



perfect Time



시간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무브먼트,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디자인,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장한 스위스메이드 워치 브랜드 미도.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성대한 이벤트와 더불어 오직 한국 워치 마니아를 위한 한정판 시계를 내놓았다. 지금이야말로 미도의 강점에 주목해야 할 완벽한 시간.

'시계다운 시계'를 창조하는 미도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미도는 국내 대중에게 다소 생경한 브랜드였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개척한 지 5년 만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면서 고공 성장을 이뤘다. 브랜드 이름을 앞세워 공급받은 무브먼트를 장착해 판매하는 시계와는 달리 시계다운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브랜드라는 사실 덕분이었다. 미도가 COSC(Controle Officiel Suisse des Chronometres)의 인증을 받는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개수는 무려 연간 4만9천3백43개!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에 이어 스위스 워치업계 4위에 해당하는 숫자다. 해밀턴, 티쏘와 함께 스위치 그룹의 미들 레인지 시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어떤 상위 브랜드보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정교한 무브먼트를 제공한다. 이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게다가 워치메이킹 역사만 해도 올해로 97년째. 1918년 워치메이커 조지 샤렌(George Schaeren)이 스위스 비엠티에서 문을 연 이후, 세계 최초로 안티마그네틱,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방수, 충격 방지 등 네 가지 기능을 조합한 위치를 선보였고, 16피스 시계 부품을 7피스로 줄인 파워윈드(powerwind) 시스템을 발명해 가장 수리하기 쉬운 위치로 신뢰와 명성을 동시에 거머쥔 브랜드가 바로 미도다.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에서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이 꼽으려면 단연 멀티포트(Multifort) 컬렉션이다. 1934년 출시된 이래로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멀티포트는 시드니 허버 브리지의 스틸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는 스트라이프 음각 때문에 빛이 다각도로 반사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콘 모델이다. 이번에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 모델 1백 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국내 워치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것이다. 일반 시계들은 세계 각 도시를 표기하는 월드 타임 존에 Tokyo가 자리하는 데 반해, 이 제품에는 'Seoul'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하고도 소장 가치가 있는 시계라 하겠다. 스위스 시계업체가 특정 국가만을 위한 한정판을 출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도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직경 42mm 케이스와 투명 케이스 백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미도만의 정교한 컴플리케이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케이스 백에 스페셜 넘버를 새겨 '한정품이 지나는 매력을 배가시킨다. 지난 10월 13일, 에스텐 하우스에서는 미도 국내 론칭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CEO 프란츠 린더(Franz Linder)가 직접 방한해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했으며,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A Mark of True Design)'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내비쳤다. 미도의 대표 컬렉션 멀티포트 컬렉션 외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견고한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우아한 감성을 재현한 올 다이얼(All Dial), 그리고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운 곡선과 사선의 매력을 모티브로 한 커맨더(Commander) 등 올해 2015 바젤 워치 페어의 신제품을 선보여 프레스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유지태와 현장에서도 유머를 뽐낸 방송인 김명철, 아름다운 여배우 손태영과 이다희, 정겨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감미로운 목소리의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 부부가 축하 공연을 펼쳐 굶어가는 가을밤을 음악의 향연으로 수놓았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권유진**



1, 2 볼레다 오프닝 컬러 레더 스트랩이 세트 구성된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3 미도의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성대한 이벤트가 열린 에스텐 하우스 현장. 미도의 모든 워치 컬렉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부스가 마련되었다. 4 미도 한국 론칭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더. 5 한국 론칭 5주년 기념 에디션인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은 제품의 품격을 높여줄 특별한 케이스에 담겨 판매된다. 6, 7 이날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참가해 미도의 한국 론칭 5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와 배우 이다희. 8 다이아몬드와 자개 다이얼이 빛을 발하는 우아한 디자인의 비올라로 돈나 칼라버 80. 9 미도의 베스트셀러 컬렉션인 멀티포트 컬러버 80 크로노미터.



enchanted Holiday 2015

이맘때면 늘 어김없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루시땅의 크리스마스는 더욱 특별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화려한 비주얼과 다양한 향기, 그리고 재미있는 트루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는 루시땅. 올해도 변함없이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2015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아주 특별한 우정과 함께.

루시땅, 향수 상인(fragrance merchant)에게 매년 경의를 표하다

“한 해 동안 향수 상인은 프로방스를 돌아다니며 그해에 수확한 식물과 꽃과 향료를 수집한다. 연말이면 향수 상인은 그 모든 풍성한 향기들을 소개하며 프로방스의 숲과 시장에 축제 분위기를 군침 도는, 그리고 우아한 향기를 선사한다.”

향수 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시간 프로방스에 전해 내려오며 신터클로스보다 더욱 신비롭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매혹해왔다. 프레이그런스 마천트, 즉 향수 제조자이기도 하며 향수 상인이기도 한 이들은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을 연마한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꽃 향을 채취하는 향수 제조자이기도 했다. 루시땅은 이 전설 혹은 동화 같은 향기에 관한 흥미로운 트루 스토리와 향수 제조 과정에 주목했고, 루시땅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Olivier Baussan)은 향수 상인이 되기를 자처했다. 5천 년 전, 이집트 여성들은 머리 위에 송진, 과일, 향신료, 암소의 지방을 섞은 큰 모양의 장식품을 머리 위에 얹고 다녔다. 그들은 이 큰 모양 장식품을 태양에 서서히 녹아 해에 배어들어 향기를 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전래되어 향수의 고장 프로방스의 그라스 지방에서도 독특한 냉장법을 통해 향기 나는 재료에서 오일을 추출해냈다. 올리비에 보송이 루시땅을 창업했을 때 그는 로즈케리, 라벤더와 그 외 다른 아로마틱 식물을 종류해 향수를 만들었으며 1980년대 루시땅 매장엔 지금처럼 ‘프로방스의 루시땅(L'OCCITANE en Provence)’이 아닌 향수 상인 - 루시땅(L'OCCITANE, Perfumer - Fragrance Merchant)이라고 불렀다. 이는 루시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 중 하나가 되었다. 루시땅의 모든 향수는 프로방스나 지중해의 다른 지방에서 찾아낸 천연 원료에서 탄생한다. 이 루시땅의 천연 원료는 향기 자체가 신선하고 자연스러우며, 마치 지중해로 휴가를 떠난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라스 지방의 피뎬 하우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하우를 쌓은 향수 장인들이 루시땅의 향수를 위해 일하며, 루시땅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천연 향료 수집에서 프로방스의 자연과 전통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름다운 우정과 빛나는 여정 - 올리비에 보송과 피에르 에르메의 만남

루시땅 창립자이며 자연주의 제품 개발의 선구자 올리비에 보송과 독특한 맛과 향 창작의 대가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Pierre Hermé), 오래된 두 친구의 뜻밖의 만남. 원료에 대한 그들의 독창성과 열정이 모여 이례적이고 특별한 홀리데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루시땅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의 오래된 친구이며 프랑스 최고의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가 함께 작업한 이번 에디션은 루시땅에선 처음으로 진행하는 컬래버레이션 작업으로, 이번 2015년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의 트루 스토리는 이로써 더욱 특별해졌다. 프로방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 '코르시카(Corsica)'에서 두 아티스트가 받은 특별한 영감을 통해 이국적이고 스페셜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재스민(jasmin), 이모르텔(immortelle),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루바브(rhubarb), 만다린 오렌지(mandarin orange), 허니(honey) 등 자연의 컬러 조합으로 피에르 에르메는 감미롭고 고귀한 향기를 창작하고, 올리비에 보송은 디자인을 맡아 마음을 사로잡는 세 가지 컬렉션을 완성했다. 예기치 못한 이 둘의 만남이 코르시카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그 어디에도 없던 매력적이고 새로운 향기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최고 파티시에의 조향 능력과 디저트 같은 달콤함이 루시땅 창립자 올리비에 보송의 시적인 언어를 더해 탄생한 아주 특별한 홀리데이 컬렉션. 이번 크리스마스를 더욱 향기롭게 물들일 것이다.



루시땅의 특별한 2015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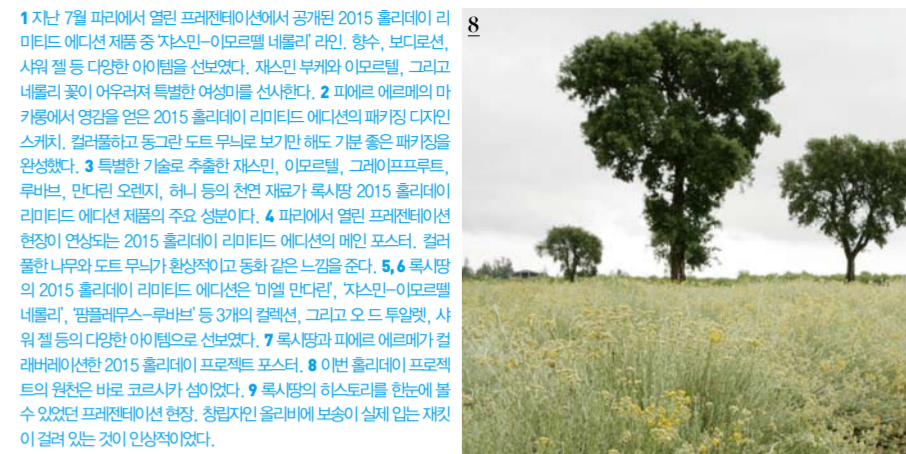
지난 7월 파리에서 있었던 루시땅 2015 홀리데이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올리비에 보송과 피에르 에르메를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 그들의 흥미로운 컬래버레이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올리비에와 피에르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편안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갔다. 화장품 회사 창립자와 파티시에의 이색적인 만남이라는 단순한 표현만으로도 그들의 만남을 설명하는 것은 결례처럼 느껴졌다. 이름다음과 향기에 대한 재해석, 우정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물 같은 향기,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매력. 이는 루시땅의 크리스마스 향기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중 '일부'일 것이다. 올리비에와 피에르의 담백한 이야기, 그리고 Q&A를 통한 친근한 현장 인터뷰를 소개한다.

Olivier Baussan said...

오래전에 저는 이름다운 섬 코르시카를 저의 오랜 친구 피에르 에르메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피에르에게 제안한 코르시카 테이스팅은 섬에 대한 전설과 아주 옛날 섬 남쪽에 도착한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곳에서 자라는 꽃의 사진인 이름다음, 목동, 특유의 향기를 발견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의 감성이 코르시카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다음을 그만의 탁월한 미학과 후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피에르는 천천히 코르시카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기 빠져들었습니다. 피에르와 제가 함께 나누는 자연의 향기에 대한 열정을 담은 제품으로 자연의 테이스팅을 제안하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파티시에의 조향 능력, 디저트 같은 달콤함이 제가 루시땅의 시적인 언어를 더해 탄생시킨 아주 특별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만나기 바랍니다.

Pierre Hermé said...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곳에서 자라는 시들지 않는 불멸의 꽃 이모르텔과 시트라스류의 섬뜩한 과일을 포함한 코르시카의 향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모르텔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향수를 만드는 조향 업무와 파티시에의 업무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조향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제게도 무척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저는 특정 카테고리에 포함할 향수를 상상하더라도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 조향사가 아닌 탓에 향수의 카테고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저 향기의 이름다음만을 추구했을 뿐이죠. 저는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다운 향기 3종을 완성했고, 루시땅 팀의 시적인 사안이 이 3개의 향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조향 업무는 먼저 최대한 다양한 향기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조합해 네 가지 향수를 완성했고, 그 가운데 3개를 루시땅의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제가 만든 디저트의 향기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 일부는 전혀 색다른 향기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결과물이 예상 이상으로 훌륭해서 만족스럽네요.



interview. Olivier Baussan + Pierre Hermé

“우정, 경험, 열정!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특징은? 올리비에 보송(이하 O.B) 이번 컬렉션의 특징은 각자의 캐릭터가 강한 독특한 원료들의 대담한 조합이라는 단어로 정의됩니다. 파티시에가 완성한 달콤한 향수는 너무 일상적인 해석이고 여겨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연상케 하는 패키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크리스마스 컬렉션으로 출시는 제품의 특성상 축제 분위기와 모험성을 실려 다뤄졌습니다. 모자를 정장해놓은 빅스처럼 원형으로 제작한 패키지의 콘셉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선물 상자를 연상케 하는데, 이를 통해 기쁨, 행복, 파티 등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피에르 에르메와 루시땅이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O.B 루시땅에서 이번 컬렉션을 계기로 디저트를 판매할 계획인 것은 아니지만(웃음) 피에르 에르메에게는 우정으로 시작된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의미 외에 커머셜적인 큰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루시땅의 2015년 홀리데이 컬렉션을 대신해 크리스마스 시즌, 전세계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피에르 에르메(이하 P.H)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과 예술 분야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향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자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루시땅 팀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 수 있었으니까요. 페이스트리를 맛보며 느끼는 향과 향수를 통해 느끼는 향기 사이의 감성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P.H 미각은 입과 코가 동시에 자극되면서 느끼는 것이지요. 조향은 후각을 통해서만 각자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페이스트리의 향과 향수의 향이 주는 자극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세 가지 단어로 정의한다면?** O.B & P.H 우정, 경험, 열정! **코르시카의 원료 중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O.B 이름이 에서 시작해서 드로 끝납니다(웃음). 네, 이모르텔입니다. **이모르텔 향이 나는 마카롱도 존재하나요?** P.H 향수에 사용된 원

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린 마카롱을 맛보실 텐데, 현재 피에르 에르메부터 코르시카에서 판매하는 마카롱 빌레리의 정원(Jardin de Valérie)은 시더우드와 이모르텔 향기를 담은 제품입니다. 빌레리가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코르시카에서 만든 제 아메리칸(웃음). **두 분은 어떻게, 언제부터 친구가 되었는지요?** P.H 푸드 관련 업계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빈한한 연인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친구이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웃음) 친구가 된 지 20여 년쯤 지난 것 같네요. 그때 이미 올리비에에는 올리브 오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리비에 덕분에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이 놀라운 식재료를 알게 되었고, 올리브 오일이 서로 친해질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O.B 저는 피에르 덕분에 파리의 숨겨진 맛집을 알게 되었죠(웃음). 두 분의 컬래버레이션은 신선했던가요? P.H 올리가에와 함께 코르시카를 찾았을 때, O.B 피에르의 무언기를 함께 해보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약 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물론 그때는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단계에 그쳤죠. 이 막연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형태로 갖추게 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이번 컬렉션 같은 조향은 1년여의 작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완성하게 해준 계기는 피에르와 제가 함께 나누는, 우정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과 열정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정성스럽게 완성한 향기들이 올해의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잠깐 소개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사실은 이 향수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두 분 사이를 이토록 돈독하게 해주는 서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B 피에르와 저는 고객과의 약속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르도, 저도 앞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까지 화려함이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 저와 피에르의 우정이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은 각자의 진솔함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컬래버레이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O.B 이번 컬렉션 향수들의 향기를 완성할 원료를 정성스럽게 고른 것은 피에르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원료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한 것도 피에르였죠. 제가 맡은 임무는 피에르와 함께 향기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디자인으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피에르에게 전하는 질문입니다. 코르시카를 소개한 것은 올리비에라고 들었는데, 올리비에를 통해 알게 된 코르시카와 그 이전의 코르시카, 이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는지요?** P.H 올리비에와 함께 코르시카를 찾았을 때, 사실 저는 그곳에 가면 같이 한 번만 갔습니다. 코르시카를 가장 처음으로 발견하게 해준 사람은 올리비에였고, 이후 그곳에서 만나게 된 코르시카 출신 아파와 섬 곳곳을 누비면서 코르시카 특유의 매력을 배웠죠. **O.B 덕분에 이제는 피에르가 저보다 코르시카를 훨씬 더 잘 압니다(웃음). 피에르가 올리비에를 통해 코르시카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반대로 올리비에에는 피에르에게서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O.B 아무의 오랜 친구라도 저희 두 사람의 생활은 다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찾아낸 천연 원료를 그를 활용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제 제품에 대한 열정만큼은 서로가 함께 나누는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고, 그런 각자의 감수성이 서로에게 영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에서 이모르텔과 재스민을 믹스해낸 피에르의 놀라운 창의력은 제게 기쁜 좋은 자극과 새로운 배울의 계기를 제공해주었죠. 피에르가 현존하는 최고의 파티시에로 인정받고 있는 우연이 아닙니다. 파티시에와 오렌지를 혼합해낸 마카롱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모르텔과 재스민의 놀라운 만남을 연출해내는 천재적인 상상력이 그의 명성을 구축해준 것이죠. 또 재원에서 식용으로만 사용하던 재료 루바브의 에센스 오일을 피에르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제공하는, 이토록 훌륭한 우정을 피에르와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비에가 추천하는 피에르의 디저트, 피에르가 추천하는 루시땅의 제품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P.H 단면, 특히 명의 핸드크림과 바네사 샤워 젤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애용하는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O.B 루시땅의 홀리데이 컬렉션처럼 피에르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 페이스트리를 제안하곤 하죠. 제가 추천하는 피에르의 디저트는 2015년, 그 중 하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한 바바 오 탕(Baba au Rhum)입니다. 광장지 선물하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피에르의 바바 오 탕은 디저트인데, 피에르의 바바 오 탕은 몇 년이 지난 자전 역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던 탓에 지금은 맛볼 수 없는데, 피에르가 꼭 다시 만들어주었으면 좋았을(웃음). 나머지는 피에르의 디저트 세계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디저트 '이스파한(Isphahan, 로즈 마카롱과 로즈 크림, 램스베리 등이 들어 있는 케이크)입니다. 제 말이 18세 생일을 맞았을 때 피에르가 카다랑게 만들어 선물해준 이후로 이스파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죠.******

Be refreshed

피부 톤과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비타민이아말로
 푸석하고 칙칙해진 환절기 피부의 해결사다. 지금 당신의 화장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리케이 타일라이
 조 리플렉시브 세럼 +C 자쿠상에서 비타민 C 함
 량이 가장 높은 카카두 자두 성분을 들뜬 에센스,
 천연 비타민 성분인 주름과 멜라닌 생성
 을 막아주며, 매주 1병씩 4주 동안 사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해 사용량을 확인해가며 피부의 변화
 를 느낄 수 있다. 7.5mlx4 16만원. 문의 080-
 500-1963

프로스틴 비타민 C 컨센트레이트 열에 약한 손
 수 비타민 C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 냉각기에 제
 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프로스
 틴의 비타민 크림. 안색 개선에 효과적인 비타민
 C 성분을 정제하지 않고 고농축으로 함유한 제
 품으로, 생과와 탄력을 선사한다. 25ml 5만5천
 원. 문의 080-023-7007

달랑 비타민스킨 안티-라피드 다이아미지닝 세
 럽 에스테틱 코즈메틱으로도 잘 알려진 달랑의 비
 타민 세럼. 무원자·무 열매 추출물과 비타민 C
 가 주요 성분으로 외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준다. 특히 물처럼 가벼운 텍스처가 빠른
 게 흡수되어 피부를 자극 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준
 다. 30ml 10만5천원. 문의 02-3440-2706

루메네 브라이트 나우 비타민 C 드라이 스킨 락
 테일 세럼 오일에 가까운 제품으로, 오렌지나
 비타민 C가 2배 많은 북극산 클라우베리를 함
 유해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피로·스트레스를 비롯한 건
 조까지 없고 매끈하게 피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같은 오일 텍스처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이 사용하기도 좋은 제품임을 정도로 흡수
 려이 빠르다. 30ml 4만5천원. 문의 02-3665-
 8650

카멜 피부톤을 주름 개선 트리트먼트 플렉 리플에
 디션 카멜의 다들로스트 솔루션스 라인에 최
 초 제품이자, 라인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에센스. 물과 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고농축 비타
 민 C 포뮬러로 눈가와 입가 주름, 피부 톤 개선을
 케어해준다. 가격 대비 대용량 사이즈로 만족감
 을 더한다. 75ml 10만5천원. 문의 1899-3322

샤넬 이드라 뷰티 에센스 미스트 제품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에센스가 그대로 녹아든 미스트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한다. 비타민
 C와 E 성분이 칙칙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맥류 성분이 보습을 책임진다. 상쾌하고 온은
 한 향으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하면 메이
 크업의 밀착력을 높일 수 있고, 메이크업 후 뿌리
 먼 피부가 은은하게 빛난다. 50ml 12만원. 문의
 080-332-2700

블리스 트립플 옥시진 인스턴트 에너징 미스트
 핑 마스크 일일 산소 팩이라 불리며, 스킨케어
 촬영 전후 피부 관리를 위해 애용한다고 알려져
 유명세를 탄 제품. 피부에 산소와 비타민을 공급
 해 맑은 피부로 만들어준다. 얼굴에 도포하면 거
 품으로 변하는 제품을 5분 뒤 씻어내는 워시우
 프 타입이다. 100ml 7만9천원. 문의 02-514-
 5167 에디터 김지혜



editor's Pick

11월부터 발 빠르게 사수해야 할 홀리데이
 컬렉션부터 차디찬 겨울바람에 맞설 고보습
 스킨케어 제품과 파스하고 깊은 향의 향수까지.
 <스타일 조션일보> 기자들이 꼽은 이달의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koo eun mi*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테가 베네타 노트 오 플로럴 오 드 퍼플 이틀리아 리
 비에라 해안 지방의 풍경을 담은 향수. 잔적 노트 오 드 퍼플과 달리 꽃향기가 깊어
 여성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마스크의 부드러운과 airy라인 로즈, 피오니아 향
 기가 시시우드와 톱가 반을 만나 생생하지만 짙은 플로럴 향기를 선사한다. 50ml
 15만원. 문의 02-6924-6572_by 어시스턴트 김수민

뽀 포드 뷰티 누르르 래쉬 스킨 마스크라 뽀 포드 뷰티의 시그니처 향수 누르르 푸
 어 폼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 제품인 만큼 관능적인 질감을 담았다. 세피라
 코발트 블루 컬러를 보는 순간 광선처럼 수 있지만, 직접 빨라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 새틴인 속눈썹과 airy러져 오묘한 분위기를 지어내며 맡았다. 6ml 5만원.
 문의 02-3479-1436_by 어시스턴트 김수민

루팡 샴어 벨링 하니 울트라 스킨 바디 크림 범람 무늬의 노란색 인 케이스에
 가득 담긴 이 크림은 루팡이 매년 11월에 선보이는 샴어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끈적이는 화장은 극도로 가리는 편인데, 이 제품의 걸쭉한 사용감에 반했다. 보
 드라운 텍스처의 크림이 바르는 순간 흡수되며, 가볍지만 충분한 수분을 제공한다.
 100ml 3만6천원. 문의 02-3014-2941_by 어시스턴트 김수민

조르자오 아브마니 리스 이즈 오어 누드 아이 엠 페이스 팔레트 한 시대를 상징하
 는 아메우들의 아름다움을 담은 토날 팔레트. 무려 107개의 매트 혹은 진
 쫘릿 컬러의 아이섀도우 구성해 여러이러한 누드 톤 메이크업부터 섹시한 스
 모키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팩트와 두 종류의 컨실러도 포
 담되어 있으나,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은 문제없다. 24g 16만원. 문의
 080-022-3332_by 어시스턴트 김수민

클린스나 수프라 데콜레 & 넥 컨센트레이트 보디 관리 오일과 인스투를 위한 보
 디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에게 넥 제품에도 관심이 있다. 귀 뒤쪽과 관자들이
 부터 목 앞쪽으로, 데콜레에서 턱 라인까지 이어지는 목 주름을 케어하고 살
 더면 추천한다. 자연 추출물을 담았다는 것도 신뢰가 가는 이유다. 50ml 15만원. 문
 의 080-542-9052_by 에디터 배지민

클린스나 진동 클렌저 미어기 진동 클렌저에 입문하고 싶다면, 진동 클렌저 원조
 1세대 제품인 미어를 눈여겨보자.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보급형 기기로, 손으로
 클렌징하는 것보다 해에 더 뛰어난 세정력을 갖춘 물살 모공 사워 클렌징 효과는
 세련 시로온이 극찬할 정도다. 세안 후 살은 달걀처럼 매끄러워진 피부결을 경험
 할 수 있을 것. 16만원. 문의 080-348-0090_by 에디터 권유진

슈에루라X매종 키츠네 얼티메이트 클렌징 오일 워트 있고 재기 발랄한 스타일로
 패션 제품들을 시로잡은 매종 키츠네와 컬러의 미술사 슈에루라의 만남은 역사나
 가미를 차분하지 않았다. 촉촉한 세정력으로 사랑받아온 얼티메이트 클렌징 오일
 의 효과와 명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종 키츠네의 아이세도 팔레트를 입
 은 샤를스라는 메이크업 욕심 만족이 시로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 150ml 4만
 9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권유진

글레드 보메지조지 코자미 홀리데이 에디션 메이크업 코즈메틱 애호적인 기모
 티브가 인상적인 홀리데이 컬렉션. 주얼리 디자인이 조지 코자미가 디자인해 특
 별함을 더했다. 립스틱, 마스크라, 아이섀도우 팔레트 등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
 되었는데, 이 중 부드러운 채도가 특징인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고혹적인 눈매를 연
 출해줄 바랄 필요가 없다. 19만5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권유진

라 에르 트리트먼트 로션 라 에르샤름 스킨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토너는
 꼭 한번 써볼 만하다. 해초 성분을 담아 화장실에 넣어 얼굴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
 로도 생기를 찾을 수 있다. 주름 개선 기능성 인종까지 받아 인티메이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150ml 18만원. 문의 02-3440-2593_by 에디터 배지민

달랑 8 플라워 넥타 오일 크림 달랑의 아이코닉한 안티에이징 오일인 8 플라워 넥
 타 오일이 크림으로 탄생했다. 질감이 되직하고 묵직한데, 피부에 문지르면 오일
 로 변하면서 끈적임 없이 싹뜻하게 흡수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로즈, 라벤더, 네
 롤리 등 인티메이징에 특효를 발휘하는 총 여덟 가지 플라워 성분을 고농축해 담
 았다. 30ml 14만원. 문의 02-3440-2706_by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워터 부드르 리브르 트리트먼트 루스 피우더 메이크업 전문가들, 그리고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지락
 타치, 루스 피우더다. 식물 성분과 비타민을 담은 데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피부
 과 테스트까지 마쳤기에 까다로운 여성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g 9만5
 천원. 문의 080-549-0219_by 에디터 배지민

매종 프란시스 케징 우드 사인 우드 그동안 패브릭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를 선보
 인 매종 프란시스 케징이 이번 시즌엔 새틴을 선택했다. 첫인상은 부드러운 새틴
 소재가 피부를 감싸듯 포근하고 섹시함하고, 다소 무겁지만 깊고 풍부한 향조가
 매력 있다. 70ml 32만9천원. 문의 02-6905-3769_by 에디터 권유진

아모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이맘때엔 꼭 한번 빌라주어줬다는
 스킨케어는 늦춰야 크림.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듯 겨울이 환절기 피부도
 촉촉하게 가꾸어준다. 믿을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아모레퍼미픽의 제품이기
 더욱 매력적이다. 50ml 48만원. 문의 080-020-5757_by 에디터 배지민



